

자리로 읽어내는 문장

통합본 — 도구를 익히고, 지문에서 찾고, 문항으로 완결한다.

이론 · 적용점 · 실전을 학습 순서대로 한 권에.

1 이론편 — 문장편 본책

17개 도구를 하나씩. 단문에서 자리를 먼저 잡고 뜻을 나중엔.

2 적용점편 — 100지문 뼈대 드릴

기출 지문 전체를 문장별 뼈대로. 여러 도구가 어디에 걸리는지.

3 실전편 — 10지문 문항 풀이

지문에 문항까지. 구조로 정답을 가리키고 오답 근거까지.

01

P A R T 1 · 이론 편

도구를 하나씩 익힌다

자리가 먼저다. 뜻은 마지막에 넣는다. — CH01부터 CH17까지, -ing·-ed·to V·that의
네 얼굴·후치수식·부사절·병렬·삽입을 단문에서 손으로 표시한다.

구조는 다 보이는데 단어 하나에서 멈추는 학생을 위한 수능 독해

자리로 읽어내는 문장

자리가 먼저다. 뜻은 마지막에 넣는다.

고3 학평·모평·수능 기출 문장으로 배우는 네 동작 — 나누고 · 지우고 · 잇고 · 채운다. 17챕터.



고3 | 수능 독해 심화편

구조는 보이는데 모르는 단어에서 멈추는 학생을 위한, 자리로 견디는 법

자리로 읽어내는 문장

읽어내기 시리즈 · 문장편 I · 이론 | 고3 수능 독해 심화편

초판 1쇄 발행	2026년 8월 14일
지은이	정성봉
기획·편집	코드유니버스 · 한땀한땀
펴낸이	정성봉
펴낸곳	제이앤유아카데미
출판등록	356-2025-000052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836
전화 · 전자우편	010-2782-0745 · code_of_english@naver.com
ISBN	979-11-220305-8-7 (53740)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와 펴낸곳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 문장은 전국연합학력평가 ·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기출 원문입니다. 지문을 새로 쓰지 않았으며, 문장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표기한 정답률은 공개된 오답률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정답률 = 100 - 오답률). 소수점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구조는 다 보이는데, 단어 하나에서 멈춰요

학생이 문장을 못 읽을 때 하는 말은 둘 중 하나다.

"단어는 다 아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석은 했는데 뭘 소린지 모르겠어요."

앞의 말은 **구조**가 안 잡힌 것이고, 뒤의 말은 **뜻**이 안 잡힌 것이다. 달라 보이지만 원인은 하나다. **뜻을 너무 일찍 넣어서다.**

단어를 보는 순간 뜻이 떠오른다. 그리고 뜻이 떠오르는 순간 그 단어의 **대표 품사**에 갇힌다. **match**를 보면 "경기"가 떠오르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match**는 영원히 명사다. 동사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명사로 읽는다. 그래서 문장이 무너진다.

자리가 먼저다. 뜻은 마지막에 넣는다.

이 책은 순서를 뒤집는다. 뜻을 모르는 채로 **자리**부터 정한다. 자리를 정하고 나면 품사가 정해지고, 품사가 정해지면 뜻은 몇 개로 좁혀진다. 좁혀진 뒤에 넣는 뜻은 틀리지 않는다.

열일곱 장에 걸쳐 하는 일은 넷뿐이다. **나누고 · 지우고 · 잇고 · 채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로 그린다. 읽고 나서 한 줄이 남아야 읽은 것이다.

수록 문장은 전부 **기출 원문**이다. 예시용으로 다듬은 문장은 한 개도 없다. 문장이 규칙에 안 맞으면 문장을 고치지 않고 그 문장을 버렸다. 교재에서 되던 것이 시험장에서 안 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이 책이 다루는 것

한 문장을 여는 법. 자리 · 수식어 · S와 V · 뜻 · 개념 한 줄.

이 책이 다루지 않는 것

문법 문제 풀이, 어휘 암기, 문항 유형별 스킬. 그건 이 책 다음이다.

첫 장의 첫 문장에서 **match**가 무슨 뜻인지 모른 채로 시작한다. 마지막 장에서 같은 문장으로 돌아온다. 그때는 **왜 동사인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네 동작, 그리고 한 줄

- 1 나눈다**
품사가 아니라 **자리**로. 동사처럼 보이는 것을 먼저 가른다 — be가 있나? to가 붙었나?
PART I · CH02~06
- 2 지운다**
명사에 붙은 것 · 문장에 붙은 것을 걷어낸다. 단, **지우면 안 되는 것 다섯**이 있다.
PART II · CH07~09
- 3 잇는다**
멀어진 S와 V를 붙인다. 삽입을 넘고, **and**가 묶은 둘을 확인한다. → **빠대**
PART III · CH10~12
- 4 채운다**
이제야 뜻을 넣는다. 자리가 정한 품사 → 문맥이 고른 뜻 → 지운 것 중 되살릴 것.
PART IV · CH13~15
- 5 그린다**
빠대를 **스물다섯 자 안에 내 말로** 다시 쓴다. 한 줄이 남아야 읽은 것이다.
PART V · CH16~17

각 장의 구성

BEFORE / AFTER	이 장을 읽기 전과 후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눈에
문제 · 원리	기출 문장 하나로 걸림돌을 보이고, 규칙을 세운다
훈련	기출 문장 3~5개. 답을 보기 전에 손으로 표시 한다
해설	붉은 면 . 걸림돌 → 오독 → 처방 → 복구의 4층으로 막힌 곳을 뚫는다
정리	개념 한 줄 + 동작 한 줄. 다음 장 예고

해설을 먼저 보지 마라. 이 책의 훈련은 "맞히기"가 아니라 **손으로 자리를 표시하기**다. 표시를 해 두고 해설과 **어긋난 자리**를 찾는 것이 이 책의 사용법이다. 어긋난 자리가 곧 당신이 문장을 놓치는 자리다.

목차

PART 0 · 왜 안 읽히는가 — 단어는 다 아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유	1
CHAPTER 01 자리가 먼저다. 뜻은 마지막에 넣는다	2
PART I · 자리 — 뜻 없이 읽는다 — 형태만 보고 자리를 정한다	9
CHAPTER 02 문장은 네 자리다	10
CHAPTER 03 -ing의 네 자리	16
CHAPTER 04 -ed의 세 자리	22
CHAPTER 05 to V의 세 자리	28
CHAPTER 06 that의 네 얼굴	34
PART II · 덜어냄 — 붙은 것을 지운다 — 단, 지우면 안 되는 것이 있다	40
CHAPTER 07 명사에 붙은 것	41
CHAPTER 08 문장에 붙은 것	47
CHAPTER 09 지우면 안 되는 것	53
PART III · 이어붙임 — 떨어진 것을 잇는다 — S와 V, 삽입 너머, and가 묶은 둘	59
CHAPTER 10 S는 V를 기다린다	60
CHAPTER 11 삽입을 넘어서라	66
CHAPTER 12 and는 무엇을 묶는가	72
PART IV · 뜻 — 이제야 뜻을 넣는다 — 자리가 좁혀 놓은 자리에	78
CHAPTER 13 자리가 뜻을 정한다	79
CHAPTER 14 모르는 단어를 자리로 건딘다	85
CHAPTER 15 추상명사가 가리키는 것	91
PART V · 개념 — 한 줄로 그린다 — 읽고 나서 남는 것	97
CHAPTER 16 네 동작 연속	98
CHAPTER 17 문장에서 개념으로	103

* 모든 예시·훈련 문장은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 기출 원문이며, 출처와 정답물을 함께 표기했다.

* 한 지문에서 최대 두 문장까지만 뽑았다(CH01 앵커 지문 제외).

왜 안 읽히는가

단어는 다 아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유



이 파트는 진단이다. 단어를 다 아는데도 문장이 안 열리는 이유가 어휘가 아니라 **순서**에 있다는 것을 한 문장으로 보인다.

CHAPTER 01

자리가 먼저다. 뜻은 마지막에 넣는다

자리 → 뜻

자리가 먼저다

BEFORE

모르는 단어가 든 선택지는 읽지도 못하고 버린다. 그리고 아는 단어로 된 것을 고른다.

AFTER

뜻을 몰라도 자리는 정해진다. 자리를 세워 두면 주변이 뜻을 좁혀 준다.

문제 2024년 6월 고3 모평 34번 · 빈칸 완성 [3점] · 정답률 22%

Any attempt to model musical behavior or perception in a general way is filled with difficulties. With regard to models of perception, the question arises of whose perception we are trying to model — even if we confine ourselves to a particular culture and historical environment. Surely the perception of music varies greatly between listeners of different levels of training; indeed, a large part of music education is devoted to developing and enriching (and therefore likely changing) these listening processes. While this may be true, I am concerned here with fairly basic aspects of perception — particularly meter and key — which I believe are relatively consistent across listeners. Anecdotal evidence suggests, for example, that most people are able to "find the beat" in a typical folk song or classical piece. This is not to say that there is complete uniformity in this regard — there may be occasional disagreements, even among experts, as to how we hear the tonality or meter of a piece. But I believe _____.

* anecdotal: 일화의

- ① our devotion to narrowing these differences will emerge
- ② fundamental musical behaviors evolve within communities
- ③ these varied perceptions enrich shared musical experiences
- ④ the commonalities between us far outweigh the differences
- ⑤ diversity rather than uniformity in musical processes counts

정답은 ④다. 이 문제를 푼 고3 학생 100명 중 78명이 틀렸다.

진단 이번엔 진짜 모른다

고1·2 때 들던 말은 이랬다 — "단어는 다 아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고3은 다르다. 여기엔 진짜 모르는 단어가 있다.

단어	수준
commonalities	고등 고난도
outweigh	고등 필수
uniformity	고등 고난도
perception · consistent · diversity	고등 기본
anecdotal	사전에도 없어 각주가 달렸다

정답 ㉔에는 모르는 단어가 두 개 붙어 있다 — commonalities와 outweigh.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학생은 ㉔를 읽지 않는다. 읽을 수 없으니까 버린다.

→ 모르는 단어가 든 선택지는 후보에서 지운다.

이게 고3 학생이 틀리는 방식이다. 고1·2 때는 아는 뜻을 잘못 넣어서 틀렸고, 지금은 모른다는 이유로 아예 안 봐서 틀린다.

그리고 남은 것 중 아는 단어로만 된 것을 고른다. 대개 ㉔다 — diversity도 uniformity도 지문에 나왔던 말이라 눈에 익다.

원리 그런데 자리는 보인다

commonalities를 몰라도, outweigh를 몰라도, ㉔의 구조는 전부 보인다.

the commonalities [between us] far outweigh the differences
 _____ s _____ L 수식 J 부사 L V J _____ 0 _____

단서	판정
the + -ies	명사다. 그것도 복수다
between us가 뒤에 붙었다	앞 명사를 꾸민다 → "우리 사이의" 무엇
far는 부사다	부사 뒤는 동사다
the differences가 뒤에 왔다	그 동사는 목적어를 데려간다

뜻을 하나도 안 쓰고 자리가 다 정해졌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렇게 남는다

우리 사이의 [무엇]이 차이를 [어찌한다].

빈칸이 둘 남았다. 그런데 문장이 서 있다. 이게 출발점이다.

원리 지문이 나머지를 채운다

빈칸 앞을 보자. 이 지문은 두 번 방향을 튼다.

- | | |
|--|-------------|
| [3문장] 음악에 대한 인식은 청취자마다 크게 다르다 | ← 차이 |
| [4문장] While this may be true , 나는 기본적 측면에 관심 있다 | ← 튼다 |
| — meter와 key — 청취자 간에 비교적 일관적인 | |
| [5문장] 대부분은 민요에서 박자를 찾을 수 있다 | ← 일관 |
| [6문장] 완전히 일치한다는 말은 아니다. 전문가끼리도 이견 | ← 튼다 |
| [7문장] But I believe _____ | ← 마지막 |

6문장이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But**이 그걸 다시 뒤집는다.

물러선 뒤에 **But**이 오면, **원래 하려던 말로 돌아간다.**

원래 하려던 말은 4·5문장이다 — **기본적인 건 일관적이다.**

두 빈칸이 채워진다

우리 사이의 [무엇]이	차이를	[어찌한다]
↓		↓
공통되는 것		더 크다 · 앞선다

common + -ality + -ies	→	공통되는 것들
out- + weigh(무게)	→	무게에서 앞선다

뜻을 **마지막에 넣었다.** 자리가 먼저 서 있었기 때문에 넣을 곳이 있었다.

합정 ㉠을 고르면 왜 틀리나

㉠ **diversity rather than uniformity in musical processes counts**

= "음악 과정에서 **획일성보다 다양성**이 중요하다"

이건 **3문장**의 말이다. 필자가 4문장에서 **While this may be true**로 물러선 그 말이다.

지문에 나온 단어라고 정답인 게 아니다. **필자가 그 말을 하고 있는가**가 다르다.

diversity와 **uniformity**가 눈에 익어서 골랐다면, 고른 근거가
"아는 단어라서"였다는 뜻이다. 그건 근거가 아니다.

대원칙 이 책이 하는 일

고3 문장이 어려운 이유는 두 겹이다.

겹	무엇이	이 책에서
1차	자리를 못 잡아 구조가 안 선다	PART I~III
2차	모르는 단어에서 멈춘다	PART IV~V

둘 다 원인은 하나다. 뜻을 너무 일찍 넣거나, 뜻이 없어서 아예 멈춘다.

둘 다 뜻에 매여 있다는 점에서 같다.

자리가 먼저다. 뜻은 마지막에 넣는다.

자리부터 정하면 뜻을 몰라도 문장이 선다. 서 있는 문장에는 나중에 넣을 수 있다.

모르는 단어는 끝까지 몰라도 되는 경우가 많다 — 이 문제가 그랬다.

자리를 알려주는 것들

뜻 없이 자리를 정하는 신호는 이런 것들이다. 앞으로 한 장씩 다룬다.

신호	무엇을 알려주나	어디서
the · a · -s · -ity · -tion	명사다	CH02 · CH15
부사(far · greatly) 뒤	동사다	CH02
be 뒤의 -ing / 앞에 be 없는 -ing	동사 / 수식	CH03
to + 동사원형	동사가 아니다	CH05
명사 + between · of · that	앞 명사를 꾸민다	CH07

위 표는 전부 **문장 안의 형태** 신호다. 문장 **밖**에도 신호가 있다 —

But-However 뒤는 앞의 양보를 뒤집는다(이 장 위쪽). 문장 밖 신호는 **CH14**에서 따로 다룬다.

훈련 모른다고 치고 자리부터 정하라

각 문장에서 **굵은 단어의 뜻을 모른다고 치고** 자리부터 정하라.

그리고 **주변이 그 뜻을 얼마나 좁혀 주는지** 적어라.

1

2013.07 고3 학평 31번

30%

We don't want the disc; we want the **storage** it holds.

자리 : _____

무엇이 뜻을 좁히나 : _____

2

2023.07 고3 학평 32번

27%

A **commonality** between conceptual and computer art was the suppression of authorial presence.

자리 : _____

무엇이 뜻을 좁히나 : _____

3

2017.10 고3 학평 38번

31%

This causes them to weaken over time, so that they eventually sink below the "**threshold** of consciousness."

자리 : _____

무엇이 뜻을 좁히나 : _____

4

2024.06 고3 모평 29번

23%

What makes practicing **retrieval** so much better than review?

자리 : _____

무엇이 뜻을 좁히나 : _____

해설

막힌 지점을 되짚는다

[1] storage — 대조가 뜻을 준다 2013.07 고3 31번 · 30%

㉠ 자리

the storage — the 뒤니까 명사. want의 O다.

뒤의 it holds는 관계대명사가 빠진 관계절이 the storage를 꾸민다.

We don't want the disc; we want the storage [(that) it holds]
S V O S V O ———— | 디스크가 담고 있는 —

㉡ 줄히기

세미콜론 앞뒤가 대조다 — the disc는 원하지 않고, the storage는 원한다.

디스크는 물건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디스크가 담고 있는 것이다.

→ 저장(된 것). 뜻을 몰랐어도 "디스크가 담은 것"까지는 자리가 났다.

[2] commonality — between이 뜻을 준다 2023.07 고3 32번 · 27%

㉠ 자리

A 뒤니까 명사, 문장 맨 앞이니 S다.

between conceptual and computer art가 뒤에 붙어 명사 뒤에 붙어 S를 꾸민다. was가 V, 그 뒤가 C다.

A commonality [between conceptual and computer art]
S ———— | ———— 무엇 사이의 ————
was the suppression of authorial presence
V C ————

㉡ 줄히기

between A and B가 붙었다 — 둘 사이에 있는 무엇이다.

그리고 was 뒤에 그게 무엇인지가 나온다(작가의 존재를 지운 것).

→ 공통점. 앵커 문장의 그 단어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자리가 먼저 보인다.

[3] threshold — 동사가 뜻을 준다 2017.10 고3 38번 · 31%

㉠ 자리

the threshold of consciousness — the 뒤 명사, of ~가 꾸민다.

전체가 below의 목적어다. below가 전치사니 이 덩어리는 부사구다.

they eventually sink [below the threshold [of consciousness]]
S V ———— 어디 아래로 ————

㉡ 줄히기

동사가 sink below(그 아래로 가라앉는다)다.

아래로 가라앉는 주체는 they가 가리키는 대상이다 — 다만 이 문장만으로 그 정체는 확정할 수 없다. below 뒤의 the threshold는 그것이 내려가는 기준선이고, of consciousness가 무엇의 기준선인지 말한다.

→ 의식의 문턱(경계선). 동사 하나가 명사의 뜻을 줬다.

[4] retrieval — 비교 대상이 뜻을 준다 2024.06 고3 29번 · 23%

㉠ 자리

practicing retrieval — practicing이 makes의 O(동명사),
retrieval은 그 practicing의 O다. -al로 끝나니 명사다.

What makes practicing retrieval so much better than review
S V O _____ C _____

㉡ 줄히기

better than review — review(복습)와 견주고 있다.
than 앞뒤는 같은 급이다. 복습과 견줄 만한 공부 방법이라는 뜻이다.
re- + trieve(찾아오다) → 다시 꺼내 보는 것.

→ 인출(꺼내기). 비교 대상이 품사도 범주도 다 정해 줬다.

정리 여기까지 손에 쥘 것

개념 한 줄

뜻을 몰라도 자리는 정해진다.

동작 한 줄

모르는 단어를 만나면 멈추지 말고 자리부터 정하라. 뜻은 주변이 좁혀 준다.

무엇이 뜻을 좁히나	예
대조 (세미콜론 · not A but B)	disc ↔ storage
between · of 가 붙음	commonality between A and B
동사	sink below the threshold
비교 대상 (than 앞뒤)	retrieval ↔ review

모르는 단어에서 멈추지 않는 것. 그게 고3 독해와 고1·2 독해의 가장 큰 차이이다.

다음 장 — CH02는 문장의 네 자리다. 자리가 몇 개인지, 무엇이 그걸 정하는지 본다.

자리

뜻 없이 읽는다 — 형태만 보고 자리를 정한다

뜻을 넣지 않고 **형태만** 본다. be가 있나, to가 붙었나,逗마가 있나 — 그것만으로 그 단어가 어느 자리에 앉는지 정해진다. 여기서 **빠대를 세울 재료**가 나온다.

CHAPTER 02	문장은 네 자리다	S · V · O · C
CHAPTER 03	-ing의 네 자리	-ing
CHAPTER 04	-ed의 세 자리	-ed
CHAPTER 05	to V의 세 자리	to V
CHAPTER 06	that의 네 얼굴	that

㉠ V가 "무엇을"을 데려온다 — S V O

2023.09 고3 모평 33번

20%

Decades later science faced the urgent questions that Mendel's discoveries could answer.

[Decades later] science faced the urgent questions [that Mendel's ... answer]
 └ 부사 ┘ S V O _____ └ 어떤 질문? ┘

faced 뒤에 the urgent questions—명사다. science = questions가 아니니 O다.

O 뒤에 붙은 that ~은 O를 늘린 것이지 새 자리가 아니다(CH06·CH07).
 자리를 셀 때는 명사 하나로 센다.

㉡ V가 "무엇인지"를 데려온다 — S V C

2024.06 고3 모평 31번

16%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medium is not part of the message.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medium is not part of the message
 _____ 부사 _____ S V C _____

is 뒤에 part—명사다. 그런데 the medium = part다. 그래서 C다.

be동사 뒤는 거의 언제나 C다. 문제는 be동사가 아닌 V들이다 —
 become · remain · seem · look · prove. 이것들도 뒤가 S와 같으면 C다.

자리가 하나 더 붙을 때

기출에서는 드물다. **SVOC 1.6% · SVOO 0.5%**뿐이다.
그래도 나오면 못 읽으니 모양만 익힌다.

SVOC — "누구에게" + "무엇을"

2019.10 고3 학평 33번

51%

Mouth knowledge taught us the boundaries of our bodies.

Mouth knowledge taught us the boundaries of our bodies
S V O① O②
 누구에게 무엇을

SVOC — "무엇을" + "무엇으로"

2013.07 고3 학평 36번

37%

When a certain word which is to be defined crops up in its own definition, we call it a circular definition.

[When a certain word ... crops up ...,] we call it a circular definition
└─── 부사절, 지운다 ───┘ S V O C
 it = a circular definition

둘을 가르는 법은 하나다 — 뒤의 둘이 같은 것인가.

us ≠ the boundaries니까 **OO**, it = a circular definition이니까 **OC**다.

새로 외울 게 없다. ③에서 쓴 판정을 그대로 쓴다.

정리 여기까지 손에 질 것

개념 한 줄

V가 오른쪽을 예약한다.

동작 한 줄

S를 잡고 V를 찾아라. V가 무엇을 데려오는지 보면 문형이 끝난다.

V 뒤에	자리	확인
아무것도 없다	SV	뒤는 전부 덧붙임
명사 하나	SVO	S ≠ 그것
명사·형용사 하나	SVC	S = 그것
명사 둘, 서로 다르다	SVOO	앞=누구에게, 뒤=무엇을
명사 둘, 뒤가 앞을 설명	SVOC	O + C는 같은 것

훈련 S·V를 찾고 문형을 판정하라

뜻을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자리부터** 정하라(CH01).

1

2024.06 고3 모평 36번

14%

The intentional setting of fire to manage the landscape was practised by Aboriginal people for millennia.

S : _____

V : _____

문형 : _____

2

2023.03 고3 학평 30번

17%

In centuries past, we might learn much about life from the wisdom of our elders.

S : _____

V : _____

문형 : _____

3

2024.06 고3 모평 31번

16%

A bit stream looks the same to a computer regardless of the media it is read from.

S : _____

V : _____

문형 : _____

4

2019.10 고3 학평 33번

51%

Mouth knowledge taught us the boundaries of our bodies.

S : _____

V : _____

문형 : _____

5

2013.07 고3 학평 36번

37%

When a certain word which is to be defined crops up in its own definition, we call it a circular definition.

S : _____

V : _____

문형 : _____

해설

막힌 지점을 되짚는다

[1] S V — 수동태는 문형이 아니다 2024.06 고3 36번 · 14%

㉠ 자리

was practised가 V다. **be + p.p.**는 한 덩어리로 V다. 쪼개지 마라.

S는 The intentional setting이고, of fire와 to manage the landscape가 그 뒤에 붙었다.

The intentional setting [of fire] [to manage the landscape]
S ————— 12칸 —————
was practised [by Aboriginal people for millennia]
V ————— 덧붙임 —————

㉡ 줄히기

was practised 뒤에 **명사가 없다**. by ~도 for ~도 전치사가 붙었으니 덧붙임이다. → **S V**

Aboriginal을 몰라도 된다. by 뒤라 덧붙임이고, 덧붙임은 자리를 안 만든다.

[2] S V O — much가 O다 2023.03 고3 30번 · 17%

㉠ 자리

문두 In centuries past,는 콤마로 끊긴 부사구다. 지운다. S는 we, V는 might learn.

[In centuries past,] we might learn much
└ 지운다 ┘ S V O
[about life] [from the wisdom of our elders]
└─────── 덧붙임 ───────┘

㉡ 줄히기

learn 뒤의 much는 **명사**다("많은 것"). we ≠ much니까 **O**다. → **S V O**

much·many·few·most는 **혼자 명사 자리**에 앉는다. 뒤에 명사가 없어도 놀라지 마라.

[3] S V C — looks는 "보다"가 아니다 2024.06 고3 31번 · 16%

㉠ 자리

S는 A bit stream, V는 looks. 뒤의 to a computer·regardless of ~는 전치사가 붙은 덧붙임이다.

A bit stream looks the same [to a computer] [regardless of the media ...]
S V C └─────── 덧붙임 ───────┘

㉡ 줄히기

the same이 남는다. A bit stream = the same이다. → **C**, 곧 **S V C**.

looks를 "보다"로 읽으면 **O**를 찾게 된다. 그런데 뒤에 O가 될 명사가 없다.

look이 **C**를 데려오면 "~로 보인다"다. 뜻이 자리를 정한 게 아니라 **자리가 뜻을 정했다**(CH13).

[4] SVOO — 명사 둘이 다르다 2019.10 고3 33번 · 51%

㉠ 자리 taught 뒤에 명사가 둘 연달아 온다 — us와 the boundaries.

Mouth knowledge taught us the boundaries [of our bodies]
S V O① O② L CH07 J

㉡ 줄히기 us ≠ the boundaries다. 같지 않으니 OC가 아니라 OO다. → SVOO

teach · give · tell · show · send는 자리를 둘 요구한다.

이 단어들은 규칙으로도 판정된다. 자주 나오니 눈에 익으면 빠를 뿐, 외우지 않아도 된다.

[5] SVOC — 뒤의 둘이 같다 2013.07 고3 36번 · 37%

㉠ 자리 문두 When ~ definition,은 접속사로 시작하니 주절이 아니다. 콤마까지 지운다.
남는 것은 we call it a circular definition.

[When a certain word ... crops up ...,] we call it a circular definition
_____ 지운다 _____ S V O C

㉡ 줄히기 it과 a circular definition이 같은 것이다. 앞의 것을 뒤의 것이라 부른다는 말이다. → SVOC

[4]와 [5]의 차이는 뒤의 둘이 같은지 하나다. 뜻으로 가른 적이 없다.

다음 장 — CH03은 -ing의 네 자리다. 같은 모양이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수식도 된다.
가르는 것은 앞에 무엇이 있는가뿐이다.

-ing의 네 자리

BEFORE

-ing를 보면 "~하는 것"이나 "~하면서"로 뜻부터 붙였다. 그러다 한 문장에 동사가 둘 생겨 무너졌다.

AFTER

앞에 무엇이 있는지만 본다. be가 있나, 콤마가 있나, 명사에 붙었나 — 셋을 순서대로 물으면 자리가 정해진다.

이어받기 같은 모양이 네 자리에 앉는다

CH02에서 자리를 넷으로 정리했다. 그런데 **-ing**는 그 넷 중 어디에나 앉는다.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수식도 된다. **모양이 같으니 뜻으로는 못 가른다.**

자리	이름	어디에
V의 일부	진행형	be 뒤
명사	동명사	S·O·C 자리 / 전치사 뒤
형용사	분사	명사에 딱 붙음
부사	분사구문	콤마로 떨어짐

고3 문장에는 **한 문장에 -ing가 둘 셋씩** 나온다. 각각 다른 자리다.
하나를 정했다고 나머지가 따라오지 않는다 — **하나씩 판정한다.**

문제 한 문장에 -ing가 둘, 자리가 다르다

2012.09 고3 모평 28번

21%

We scientists are **being** paid to be the bus-**driving** tour guides for the rest of humanity.

[illegible]

둘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무너진다. **being**을 명사로 잡으면 **are**의 짝이 없어지고, **driving**을 동사로 잡으면 한 절에 동사가 셋이 된다.

앞을 보면 걸린다. being 앞에는 are가 있고, driving 앞에는 bus-가 붙어 뒤의 tour guides를 꾸민다. 뜻을 한 번도 묻지 않았다.

판정 위에서부터 하나씩

- ① 앞에 be동사가 있는가 → 예: V의 일부 (진행형)
- ② 콤마로 떨어져 있는가 → 예: 부사 (분사구문)
- ③ 명사에 딱 붙어 있는가 → 예: 형용사 (분사)
- ④ 나머지 → 명사 (동명사). S·O·C 자리가거나 전치사 뒤

네 단계 모두 형태만 본다. -ing가 무슨 뜻인지 한 번도 묻지 않는다.

②의 불변식 — 콤마로 떨어졌다는 건 **콤마 바깥에 S·V가 따로 서 있다**는 뜻이다.
 앞이든 뒤든 상관없다. 콤마 앞에 서 있어도(They went home, leaving ...),
 콤마 뒤에 서 있어도(Leaving home, they ...) 그 -ing는 부사다.

①의 예외 하나 — be 뒤 -ing가 언제나 진행형은 아니다.
 Failing a test is failing a test.처럼 be 앞뒤가 같은 모양이면 진행형이 아니라 A = B다.
 드무니 규칙은 그대로 두고 이 모양만 기억한다.

㉠ 명사 — 동사 앞이면 주어다

2011 고3 수능 28번 26%

The mind may be reluctant to think properly when **thinking** is all it is supposed to do.

... when thinking is all [it is supposed to do]
 S V C

thinking 앞에 be가 없고(①×), 콤마도 없고(②×), 앞에 명사도 없다(③×).

바로 뒤에 is가 왔다. 동사 앞자리는 주어다(CH02). → 명사(동명사)

when이 이끄는 절도 그 안에 S·V가 따로 있다(CH06). 절이 바뀌면 자리도 다시 센다.

㉡ 형용사 — 명사 뒤에 딱 붙는다

2024.03 고3 학평 39번 24%

A painting in perspective represents how the world looks to a person **seeing** the scene from a particular position in space.

... to a person [seeing the scene from a particular position in space]
 명사 어떤 사람? 딱 붙어 꾸민다

앞에 be 없다(①×). 콤마 없다(②×). 앞 한 칸이 a person—명사다(③✓) → 형용사

-ing가 명사 뒤에서 꾸미면 관계절이 줄어든 것이다 —
 a person [who is] seeing the scene. CH06·CH07에서 다시 만난다.

전치사 뒤도 명사 자리다

-ing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다. 전치사 뒤는 명사 자리이기 때문이다.

after publishing it of embracing professional risk by reading
 「 명사 」 「 명사 」 「 명사 」

to만 조심한다. to 뒤가 동사원형이면 전치사가 아니라 to V다(CH05).
 look forward to reading처럼 to 뒤에 -ing가 오면 그 to는 전치사다.

정리 여기까지 손에 질 것

개념 한 줄

-ing는 앞의 표지를 먼저 보고, 표지가 없으면 문장 속 자리를 확인한다.

동작 한 줄

be? 콤마? 명사에 딱 붙었나? — 위에서부터 하나씩 묻는다.

앞에 무엇이	자리	예
be	V의 일부	are being paid
콤마 (바깥에 S·V)	부사	..., feeding on ...
명사 바로 앞	형용사	a person seeing ...
전치사 · 동사 앞	명사	after publishing / thinking is ...

훈련 각 -ing의 자리를 판정하라

-ing가 여럿이면 **하나씩** 센다. 판정 근거(①②③④)도 함께 적어라.

1

2024 고3 수능 34번

24%

That's why we find so many well-intentioned and civic-minded citizens arguing past one another.

arguing : _____

근거 : _____

2

2018.07 고3 학평 33번

31%

But after publishing it in 1922, Eliot kept his London bank job until 1925, rejecting the idea of embracing professional risk.

publishing / rejecting / embracing : _____

근거 : _____

3

2011 고3 수능 28번

26%

The mind may be reluctant to think properly when thinking is all it is supposed to do.

thinking : _____

근거 : _____

4

2021.09 고3 모평 39번

30%

These consumer communities go beyond national boundaries, feeding on global and widely shared repositories of ideas, images, and practices.

feeding : _____

근거 : _____

5

2013.04 고3 학평 39번

24%

Young athletes may run with the belief that they will run faster and faster until they reach the finishing line.

finishing : _____

근거 : _____

해설

막힌 지점을 되짚는다

[1] 형용사 — 명사 뒤에서 꾸민다 2024 고3 수능 34번 · 24%

㉠ 자리 **arguing** 앞에 be 없다(㉠×). 콤마 없다(㉡×). 앞이 **find**의 O인 **citizens**이고, **arguing**이 그 O의 동작을 말한다 → 목적격보어(C).

we find so many ... citizens [arguing past one another]
S V O ————— └ 어떤 시민들? ┘

㉡ 좁히기 **find** 뒤에 O(**citizens**)와 그 O가 무엇을 하는지 말하는 C(**arguing**)가 온다. **arguing**은 현재분사 목적격보어다. → O + C

find·see·hear는 뒤에 O + -ing를 데려오기도 한다(SVOC). 자리 이름이 O·C 중 무엇이든 -ing가 앞 명사에 붙는다는 판정은 같다.

[2] 셋이 각각 다른 자리 2018.07 고3 33번 · 31%

㉠ 자리 -ing가 셋이다. 하나씩 앞을 본다.

-ing	앞에 무엇이	판정
publishing	전치사 after	㉣ 명사
rejecting	콤마	㉡ 부사
embracing	전치사 of	㉣ 명사

[But after publishing it in 1922,] Eliot kept his London bank job
└ 부사구 ┘ S V O
[rejecting the idea of embracing professional risk]
└ 부사(분사구문) — 콤마 바깥에 Eliot kept가 서 있다 ┘

㉡ 좁히기 셋 중 어느 것도 이 문장의 V가 아니다. V는 **kept** 하나다.
-ing 셋을 다 지워도 **Eliot kept his job.**이 선다.

하나를 정했다고 나머지가 따라오지 않는다. 앞이 다르면 자리도 다르다.

[3] 명사 — 동사 앞은 주어다 2011 고3 수능 28번 · 26%

㉠ 자리 **thinking** 앞에 be 없고 콤마 없고 명사도 없다. 그런데 바로 뒤가 **is**다.

... when thinking is all [it is supposed to do]
S V C
명사 자리

㉡ 좁히기 동사 앞자리는 주어이고, 주어 자리는 명사 자리다(CH02). → 명사(동명사)

to think와 **thinking**이 한 문장에 있다. **to think**는 **to**가 붙었으니 동사가 아니고(CH05), **thinking**은 주어다. 둘 다 V가 아니다. 이 문장의 V는 **may be**와 **is**뿐이다.

[4] 부사 — 콤마 바깥에 S·V가 서 있다 2021.09 고3 39번 · 30%

㉠ 자리 feeding 앞이 콤마다(㉡✓). 콤마 앞에 These consumer communities go—S·V가 이미 서 있다.

These consumer communities go beyond national boundaries,
S V
[feeding on global and widely shared repositories ...]
_____ 부사(부사구문). 지위도 문장이 선다 _____

② 좁히기 지워 보면 **These communities go beyond boundaries.** — 선다. → 부사

кома 뒤에 **-ing**가 오는데 **새 S가 없으면** 분사구문이다. 새 S가 있으면 절이다(CH12).

[5] 형용사 — 굳어진 수식 2013.04 고3 39번 · 24%

㉠ 자리 **finishing** 앞 한 칸이 **the**이고 뒤가 **line**—명사에 딱 붙었다(㉢✓).

until they reach the finishing line
↳ 딱 붙음 → 형용사

◎ 좁히기 the finishing line은 통째로 reach의 O다. finishing은 그 안에서 line을 꾸민다.
자리 안에 자리가 있다 — O 하나를 셀 때 그 속의 수식은 따로 세지 않는다(CH02).

the ___ line 끝이면 빈칸은 꾸미는 자리다. 뜻을 몰라도 그건 정해진다.

다음 장 — CH04는 -ed의 세 자리다. -ing보다 어렵다. 같은 -ed가 동사의 과거이기도 하고 수동의 일부이기도 하고 수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d의 세 자리

BEFORE

-ed를 보면 동사라고 읽었다. 그러다 뒤에서 진짜 동사를 만나 동사가 둘이 되어 무너졌다.

AFTER

오른쪽을 계속 본다. 뒤에 동사가 또 오면 앞의 -ed는 동사가 아니라 수식이었다.

이어받기 -ing보다 어렵다

CH03의 -ing는 동사면 반드시 앞에 be가 있었다. 없으면 동사가 아니었다.

-ed는 다르다 —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도 동사다(과거형).

그래서 "앞을 본다"만으로는 안 끝난다.

자리	언제	예
V (과거)	앞에 아무것도 없다	The kids began ...
V의 일부	앞에 be·have	were invented · has been ...
수식 (분사)	앞 한 칸이 명사 — 콤마 뒤·콤마 쌍 안도 여기	the items used ...

셋 중 앞의 둘은 V고 하나는 V가 아니다. 이 장은 그 하나를 가려내는 장이다.

잘못 가리면 한 짝에 동사가 둘이 되어 문장이 통째로 어긋난다.

문제 아홉 단어를 동사로 읽고 무너진다

2025.09 고3 모평 31번

29%

Data on male mating success **collected** in the wild **supports** their hypothesis.

대부분이 이렇게 읽는다 — Data ... **collected in the wild**

→ "데이터가 야생에서 수집했다". 여기까지는 말이 된다.

그리고 **supports**를 만난다. 동사가 둘이다. 여기서 멈춘다.

Data [on male mating success] [collected in the wild] supports their hypothesis
 S — CH07 — 수식(분사) — V 0
 S가 7칸

collected가 동사였다면 **supports**가 갈 곳이 없다.

오른쪽에 동사가 또 왔으니 앞의 -ed는 수식이었다.

판정 앞을 보고, 안 끝나면 오른쪽을 본다

- ① 앞에 be · have가 있는가? → 예: V의 일부 (수동 · 완료). 여기서 끝.
- ② 콤마로 떨어져 있는가? → 예: **V가 아니다**. 앞 명사를 꾸미면 수식(삽입), 문장 전체에 붙으면 부사(분사구문)
- ③ 앞 한 칸이 명사인가? → 예: 수식 (분사) ← 오른쪽에 진짜 V가 또 온다
- ④ 나머지 → 과거동사. 이게 진짜 V다

③과 ④를 가르는 것이 이 장의 전부다. 둘 다 "명사 + -ed" 꼴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르는 법은 오른쪽이다. S + -ed ... 뒤에 동사가 또 오면 그 -ed는 ③(수식)이고, 안 오면 ④(과거동사)다. 앞만 봐서는 안 갈린다 — 끝까지 읽어야 정해진다.

①·③ 한 문장에 둘이 같이 있다

2015.07 고3 학평 33번 20%

An initial examination of a large corpus **revealed** surprising repetitiveness in both the object of the compliments and the lexical items **used** to describe them.

An initial examination [of a large corpus] revealed surprising repetitiveness ...
 S ————— — CH07 ————— V ④ 0
 ... the lexical items [used to describe them]
 명사 ————— 수식 ③ —————

revealed 앞은 명사(corpus)지만 오른쪽에 동사가 더 없다 → ④ 과거동사.

used 앞도 명사(items)인데 이미 V가 나왔다 → ③ 수식.

같은 모양, 같은 앞 단어(명사), 다른 자리. 가른 것은 오직 오른쪽에 V가 있느냐다.

① 앞에 be-have가 있으면 거기서 끝

2025.09 고3 모평 37번 26%

Mathematics **had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before the dashes and squiggles **were invented**.

Mathematics had been going on ... before the dashes and squiggles were invented
 S V (have + be + -ing) 접속사 S V (be + p.p.)

had been going도 **were invented**도 한 덩어리 V다. 쪼개지 마라.

절이 둘이면 V도 둘이다. **before**가 절을 하나 더 열었으니(CH06) V가 둘인 게 정상이다. 동사가 둘이라고 다 틀린 게 아니다 — 절이 둘인지부터 본다(CH10).

정리 여기까지 손에 쥔 것

개념 한 줄

-ed 앞에 be·have가 있으면 V의 일부, 없으면 같은 절의 정동사 유무로 판정한다.

동작 한 줄

be·have가 바로 앞에 있으면 V의 일부다. 없으면 같은 절에 정동사가 이미 나왔는지 먼저 보고, 아직 없을 때만 오른쪽 끝까지 정동사를 찾아라.

앞에	오른쪽에 V가	자리
be · have	—	V의 일부 (여기서 끝)
кома	—	V가 아니다 — 앞 명사를 꾸미면 수식(삽입) · 문장에 붙으면 부사
명사	또 온다	수식 (분사)
명사	안 온다	과거동사 — 이게 V

훈련 각 -ed가 V인지 수식인지 판정하라

-ed가 여럿이면 하나씩 센다. V라고 판정한 것이 몇 개인지 세어 보고, 절 수와 맞는지 확인하라(CH10 예고).

1

2025.09 고3 모평 31번

29%

Data on male mating success collected in the wild supports their hypothesis.

collected : _____

이 문장의 V : _____

2

2023 고3 수능 37번

33%

The most commonly known form of results-based pricing is a practice called contingency pricing, used by lawyers.

known / called / used : _____

이 문장의 V : _____

3

2025.09 고3 모평 37번

26%

Mathematics had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before the dashes and squiggles were invented.

were invented : _____

이 문장의 V : _____

4

2014.04 고3 학평 24번

33%

The kids, energized by these activities, began to turn away from dealing drugs.

energized : _____

이 문장의 V : _____

5

2024.07 고3 학평 34번

34%

The slow pace of life gently imposed by the mother tree is no accident, as generations of foresters have observed.

imposed : _____

이 문장의 V : _____

해설

막힌 지점을 되짚는다

[1] 수식 — 오른쪽에 V가 또 온다 2025.09 고3 31번 · 29%

㉠ 자리 collected 앞 한 칸은 **success**—명사다. 수식 후보지만, 과거동사인지는 수식인지는 **오른쪽이 정한다**.

Data [on male mating **success**] [collected in the wild] supports their hypothesis
S — CH07 — 수식(분사) — V O

㉡ 줄히기 끝까지 읽으면 **supports**가 있다. V가 이미 있으니 **collected**는 V가 아니다. → 수식

S가 7칸으로 길어진 것이지 문장이 틀린 게 아니다. **Data supports their hypothesis.**가 빼대다.

[2] 셋 다 수식, V는 하나 2023 고3 수능 37번 · 33%

㉠ 자리 -ed가 넷이다 — **known · results-based · called · used**. 하나씩 앞뒤를 본다.

-ed	앞	오른쪽에 V가	판정
known	commonly (부사) + 명사 form 앞	있다(is)	수식
called	명사 a practice	이미 V 지남	수식
used	앞의 a practice	이미 V 지남	수식(분사)
based	results 와 결합, pricing 앞	있다(is)	수식(복합형용사)

The most commonly known form [of results-based pricing] is
S — CH07 — V
a practice [called ...], [used by lawyers]
C — 수식 — 수식 —

㉡ 줄히기 V는 **is** 하나다. 이 문장의 절이 하나이므로 정동사도 하나다. 네 -ed 형태는 모두 붙은 살이다.

known은 명사 **앞**에서, **called**는 명사 **뒤**에서 꾸민다.
한 단어면 앞, 덩어리면 뒤 — 위치는 달라도 하는 일은 같다.

[3] V의 일부 — 절이 둘이면 V도 둘 2025.09 고3 37번 · 26%

㉠ 자리 **were invented** 앞에 **be동사 were**가 있다(㉠✓). 여기서 판정 끝 — **V의 일부**다.

Mathematics had been going on ... before the dashes and squiggles were invented
S V ㉠ 접속사 S V ㉡

㉡ 줄히기 V가 둘로 보인다. 그런데 **before**가 절을 하나 더 열었다. 절이 둘이면 V도 둘이다.

"동사가 둘이면 무조건 하나는 가짜"가 아니다. 연결 장치(접속사·관계사)를 먼저 센다.
연결 장치가 하나면 V는 둘이어도 된다(CH10에서 정식으로 쓴다).

to V의 세 자리

BEFORE

to V를 보면 "~하기 위해"로 뜻부터 붙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명사일 때도 형용사일 때도 있어 매번 틀렸다.

AFTER

지워 본다. 무너지면 자리고, 서면 덧붙임이다. 이 도구는 PART II에서 계속 쓴다.

이어받기 앞이 아니라 지워서 판정한다

-ing도 -ed도 앞에 무엇이 있는지로 갈랐다. to V는 다르다 — 앞에 오는 것이 너무 다양해서 앞만 봐서는 안 갈린다.

자리	이름	무엇을
명사	to부정사 명사적 용법	S·O·C 자리를 채운다
형용사	// 형용사적 용법	앞 명사를 꾸민다
부사	// 부사적 용법	목적·결과 — 문장에 붙는다

셋 중 **명사만 자리를 차지한다**. 나머지 둘은 지워도 문장이 선다. 그래서 **지워 보는 것**이 첫 질문이다.

문제 앞 한 칸이 명사인데 형용사가 아니다

2021.06 고3 모평 31번

25%

The term "butterfly collecting" could come to be used with the adjective "mere" **to indicate** a pursuit of secondary academic status.

대부분이 이렇게 읽는다 — to indicate 앞 한 칸이 "mere"—명사처럼 보인다.
그래서 "'mere'라는 형용사"를 꾸민다고 읽는다 → "가리키는 'mere'"?
말이 안 되는데도 앞이 명사라서 그렇게 붙인다.

... could come to be used [with the adjective "mere"] [to indicate a pursuit ...]
V — 전치사구 — — 무엇을 위해? —
"mere"는 with의 목적어 — 자리가 이미 찼다

to indicate는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used에 붙어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to V**다. 앞의 with the adjective "mere"는 이미 완결된 전치사구라, to indicate가 붙을 명사 자리가 따로 없다.
지워 보면 The term could come to be used with the adjective "mere". — 선다.
→ 자리가 아니라 덧붙임, 곧 **부사(목적)**

판정 두 걸음

① to V를 지워 보라.

문장이 무너진다 → 명사 자리 (V가 요구한 S·O·C)

문장이 그대로 선다 → ②로

② 바로 앞 한 칸이 명사인가?

예 — 그 명사 자리가 비어 있다 → 형용사 (콤마로 나열돼도 그 명사를 꾸민다)

예 — 그런데 전치사 뒤다 → 부사 (자리가 이미 찼다)

아니오 → 부사 (~하기 위해)

①의 "지워 본다"는 PART II 전체에서 계속 쓸 도구다. 여기서 처음 쓴다.

②의 단서가 이 장에서 제일 자주 걸린다. with the adjective "mere"처럼

앞 명사가 전치사 뒤에 있으면 그 명사는 이미 전치사의 목적어다.

to V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 그러면 부사다.

명사 지우면 무너진다

2024.06 고3 모평 37번

26%

Their role should be **to assist**, consult, and advise teams on how best to approach learning.

지워 보면 → Their role should be. × 무너진다

"그들의 역할은 ~이어야 한다" — 무엇이어야?

should be가 "무엇인지"를 요구한다(CH02의 C). **to assist** ~가 그 자리를 채운다. → 명사 자리

and가 **to assist**·**consult**·**advise** 셋을 묶었다(CH12).

뒤의 둘은 to를 다시 안 쓴다 — 셋이 to 하나를 나눠 쓴다.

형용사 병렬 콤마로 나열돼도 앞 명사를 꾸민다

2025 고3 수능 32번

23%

It teaches critical thinking: the ability **to stop** and think before acting, **to avoid** succumbing to emotional pressures.

the ability [to stop and think before acting], [to avoid succumbing ...]

명사 — 형용사 ① — 형용사 ② —

둘 다 the ability를 꾸민다 (콤마로 나열)

둘 다 지워도 문장이 선다(①×). 그러면 ②다 — 앞 한 칸이 **the ability**(명사)이고 그 자리가 아직 비어 있다. 둘 다 그 명사를 꾸민다 → 형용사 둘.

to V는 **-ing**·**-ed**와 다르다. 콤마가 있어도 앞 명사를 꾸밀 수 있다(병렬 수식).

콤마 하나로 부사라고 단정하지 마라 — 앞 명사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형용사다.

부사는 그 자리가 찼을 때다(다음 박스).

정리 여기까지 손에 질 것

개념 한 줄

지워 봐라. 무너지면 자리, 서면 덧붙임이다.

동작 한 줄

① 지워서 무너지면 명사 자리. ② 서면 앞 한 칸을 본다 — 임자 없는 명사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

지우면	앞 한 칸	자리
무너지다	—	명사 (S·O·C를 채운다)
선다	명사 — 비어 있다	형용사 (그 명사를 꾸민다)
선다	명사 — 전치사 뒤	부사 (자리가 찼다)
선다	명사가 아니다 (문두 등)	부사 (~하기 위해)

훈련 밑줄 친 to V를 지워 보고 자리를 판정하라

to V가 여럿이면 하나씩 센다. 지워 봤을 때 무너지는지부터 적어라.

1 2024.06 고3 모평 37번 26%

Their role should be to assist, consult, and advise teams on how best to approach learning.

지우면 : _____

자리 : _____

2 2025 고3 수능 32번 23%

It teaches critical thinking: the ability to stop and think before acting, to avoid succumbing to emotional pressures.

to stop / to avoid : _____

자리 : _____

3

2021.06 고3 모평 31번

25%

The term "butterfly collecting" could come to be used with the adjective "mere" to indicate a pursuit of secondary academic status.

지우면 : _____

자리 : _____

4

2024 고3 수능 33번

19%

What is missing in all this is any setting or context to make the emotion determinate.

지우면 : _____

자리 : _____

5

2014 고3 수능 35번

21%

Mathematics will attract those it can attract, but it will do nothing to overcome resistance to science.

to overcome / to science : _____

자리 : _____

해설

막힌 지점을 되짚는다

[1] 명사 자리 — C를 채운다 2024.06 고3 37번 · 26%

㉠ 지우기 Their role should be. — 무너진다. be가 요구한 자리가 비었다.

Their role should be to assist, consult, and advise teams ...
S V C —————

㉡ 좁히기 무너졌으니 ㉠에서 끝 — 명사 자리다. CH02의 C를 to V가 채웠다.

how best to approach learning의 to approach는 또 다른 to V다.
on how ~ 전체가 advise에 붙은 덩어리라, 이걸 그 안에서 다시 판정한다.

[2] 형용사 둘 — 콤마로 나열 2025 고3 수능 32번 · 23%

㉠ 지우기 둘 다 지워 보면 It teaches critical thinking: the ability. — 선다. 그러면 ㉡다.

the ability [to stop and think before acting], [to avoid succumbing ...]
명사 — 형용사 ㉠ — — 형용사 ㉡ —
둘 다 the ability를 꾸민다

㉡ 좁히기 앞 한 칸이 the ability(명사)이고 자리가 비어 있다. 둘 다 그 명사를 꾸민다 → 형용사 둘.
→ "멈춰 생각하는, 굴복을 피하는 능력" — 기출 번역도 둘 다 능력을 꾸민다.

to stop and think — and가 stop과 think를 묶고 to를 나눠 쓴다(CH12).
콤마가 있어도 to V는 앞 명사를 꾸밀 수 있다 — 부사가 되는 건 앞 명사 자리가 찼을 때다([3]).

[3] 부사 — 앞 명사의 자리가 이미 찼다 2021.06 고3 31번 · 25%

㉠ 지우기 The term could come to be used with the adjective "mere". — 선다. ㉡로 간다.

... used [with the adjective "mere"] [to indicate a pursuit ...]
 — 전치사구 — — 부사(목적) —
"mere"는 with의 목적어

㉡ 좁히기 앞 한 칸이 명사("mere")이긴 하다. 그런데 그 명사는 with의 목적어다.
자리가 이미 찼으니 to V가 꾸밀 수 없다. → 부사

여기서 "명사가 앞에 있으니 형용사"로 가면 "가리키는 'mere'"라는 말이 안 되는 해석이 나온다.
앞 명사에 임자가 있는지까지 봐야 판정이 끝난다.

[4] 형용사 — 앞 명사가 비어 있다 2024 고3 수능 33번 · 19%

㉠ 지우기 What is missing in all this is any setting or context. — 선다. ㉡로 간다.

... is any setting or context [to make the emotion determinate]
C ————— L 어떤 맥락? ———

㉡ 줄이기 앞 한 칸이 **context**—명사이고, **전치사** 뒤가 아니다. 그 명사는 **is**의 C로 서 있을 뿐 아직 꾸밈을 안 받았다. → **형용사**

any setting or context는 **or**로 묶인 **한 자리**다(CH02·CH12).
to make ~는 그 덩어리 전체를 꾸민다.

[5] 형용사, 그리고 to는 전치사일 수도 있다 2014 고3 수능 35번 · 21%

㉠ 지우기 it will do nothing. — 선다. ㉡로 간다. 앞 한 칸은 **nothing**—명사다(대명사).

it will do nothing [to overcome resistance [to science]]
S V O ——— L 어떤 것도 없다 ——— L 전치사구
to + 명사

㉡ 줄이기 앞 한 칸이 **nothing**—명사(대명사)이고 **전치사** 뒤가 아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 → **형용사**
— '과학에 대한 저항을 극복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뒤의 **to science**는 **to** 뒤에 명사가 온 전치사구다.
그런데 뒤의 **to science**는 **to V**가 아니다 — **to** 뒤가 **명사**다. 그냥 전치사구다.

to 뒤가 동사원형일 때만 **to V**다. 명사가 오면 전치사다(CH03의 look forward to reading도 그래서 명사였다).

다음 장 — CH06은 **that**의 네 얼굴이다. PART I의 마지막이고, 앞의 넷과 달리 뒤를 보고 판정한다.

that의 네 얼굴

BEFORE

that이 나오면 "~라는 것"으로 뭉뚱그렸다. 그래서 뒤가 어디
서 끝나는지 몰라 문장이 늘어졌다.

AFTER

뒤를 보고 가른다. 빠진 자리가 있으면 that이 그 자리를 채운
것이고, 없으면 그냥 잇는 말이다.

이어받기 PART I의 마지막 도구

앞의 넷은 앞을 보거나(-ing--ed) 지워 봤다(to V).

that은 뒤를 본다. 그리고 이 장이 PART I의 마지막이다.

모양	정체	예
that + 명사	지시형용사	that ability = 그 능력
that이 혼자 S·O 자리	지시대명사	That is why ...
that 뒤가 완전	접속사	revealed that S V O
that 뒤에 빈 자리	관계대명사	a problem that ___ is ...

앞의 둘은 눈으로 끝난다. 문제는 뒤의 둘이다 —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는 모양이 같다.

문제 S·V·O가 다 있는데 불완전하다

2022 고3 수능 21번

34%

In some cases lay people — farmers, fishermen, patients, native peoples — may have relevant
experiences that scientists can learn from.

대부분이 이렇게 센다 — that 뒤는 scientists can learn from.

S(scientists)도 있고 V(can learn)도 있다. "완전하다" → 접속사로 판정한다.

그러면 experiences에 접속사 절이 붙는 꼴이 되어 문장이 설명이 안 된다.

... relevant experiences [that scientists can learn from ___]
명사 S V ↑ 비었다

전치사 뒤를 안 썼다. from 뒤가 비어 있다 — 그 자리를 that이 채운다.

→ 관계대명사. experiences가 그 빈 자리의 임자다(과학자들이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경험).

판정 빈 자리를 센다 — 전치사 뒤까지

that 뒤에 명사가 바로 붙는다 → 지시형용사 (that ability = 그 능력)

that이 혼자 S.O 자리에 있다 → 지시대명사 (That is why ...)

that 뒤가 완전한 문장이다 → 접속사 (빠진 자리가 없다)

that 뒤에 빠진 자리가 있다 → 관계대명사 (그 자리를 that이 채운다)

"완전"이 무슨 뜻인가. CH₂O의 네 자리(S·V·O·C)가 다 차 있으면 완전이다.

한 자리를 더 센다 — 전치사 뒤.

experiences that scientists can learn from __는 S·V만 세면 "완전"이 나온다.

그런데 from 뒤가 비었다. 전치사 뒤도 명사 자리다(CH03).

문장 끝이나 콤마 앞에 전치사가 혼자 서 있으면 십중팔구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다.

접속사 뒤가 완전하다

2013.07 고3 학평 32번

33%

The investigations revealed **that** a person's level of achievement correlated strongly with the amount of practice put in.

that 뒤 → a person's level of achievement correlated with the amount ...
S ————— V L 전치사구, 목적어 있음 J
← 빈 자리가 없다

→ 접속사. revealed의 0 자리를 that절이 통째로 채운다.

문장 끝의 put in은 the amount of practice [that was] put in이다 — practice를 꾸미는 분사(CH04). in의 목적어가 빈 게 아니라 put in이 한 덩어리다.

관계대명사 뒤에 S가 비었다

2018.06 고3 모평 34번

29%

In this sense, rules create a problem **that** is artificial yet intelligible.

that 뒤 → is artificial yet intelligible
 ↑ V C
 S가 비었다

→ 관계대명사. 빈 S 자리를 that이 채운다 (= a problem)

접속사 that은 자리를 채우지 않고, 관계대명사 that은 채운다. 그래서 뒤를 보면 갈린다.

관계절 안의 동사는 가짜가 아니다. is는 진짜 동사이되 그 절의 동사다.

동사가 둘로 보이면 하나가 가짜인 게 아니라 **절이** 둘이다(CH10).

that이 사라져도 자리는 남는다

that이 목적격이면 자주 생략된다. 기출에서 생략된 쪽이 더 흔하다.

2022.06 고3 모평 33번

34%

Manufacturers design their innovation processes around **the way they think** the process works.

... around the way [(that) they think the process works]
 명사 └─ 관계절: that이 사라졌다 ─┘

명사 뒤에 명사가 또 오면(**the way + they**) 그 사이에 뭔가 사라진 것이다.
the way they를 한 덩어리로 읽으려다 **think**에서 막힌다.

이 자리를 못 보면 S가 어디서 끝나는지 모른다. CH07·CH10에서 계속 쓴다.

정리 여기까지 손에 쥘 것

개념 한 줄

that의 정체는 뒤가 정한다. 없어도 자리는 있다.

동작 한 줄

that 뒤에서 빈 자리를 찾아라 — S·O·C, 그리고 전치사 뒤까지.

that 뒤에	정체
명사가 바로	지시형용사
혼자 S·O 자리	지시대명사
빈 자리가 없다	접속사
빈 자리가 있다 (S·O·C 또는 전치사 뒤)	관계대명사
명사 + 명사 (that이 안 보인다)	생략된 관계사 (대명사/부사)

훈련 that의 정체를 판정하라

that이 없는 [5]도 있다. 빈 자리부터 찾아라 — 전치사 뒤까지.

1

2018.06 고3 모평 34번

29%

In this sense, rules create a problem that is artificial yet intelligible.

that 뒤 빈 자리 : _____

정체 : _____

2

2013.07 고3 학평 32번

33%

The investigations revealed that a person's level of achievement correlated strongly with the amount of practice put in.

that 뒤 빈 자리 : _____

정체 : _____

3

2022 고3 수능 21번

34%

In some cases lay people — farmers, fishermen, patients, native peoples — may have relevant experiences that scientists can learn from.

that 뒤 빈 자리 : _____

정체 : _____

4

2016.06 고3 모평 38번

26%

That is why people experience jet lag when traveling across time zones.

That의 자리 : _____

정체 : _____

5

2022.06 고3 모평 33번

34%

Manufacturers design their innovation processes around the way they think the process works.

사라진 자리 : _____

정체 : _____

해설

[1] 관계대명사 — S가 비었다 2018.06 고3 34번 · 29%

① 자리 that 뒤는 is artificial yet intelligible. 동사부터 시작한다.

... a problem [that — is artificial yet intelligible]
 명사 ↑ V C
 S가 비었다

② 좁히기 빈 자리가 있으니 **관계대명사**. 그 자리의 임자는 앞 명사 **a problem**이다.

intelligible을 몰라도 된다. is 뒤의 C 자리라는 건 정해졌고, artificial yet ~으로 묶였으니 artificial과 대비되는 성질이다(CH01:CH12).

[2] 접속사 — 빈 자리가 없다 2013.07 고3 32번 · 33%

◎ 자리 that 뒤에 S(a person's level ...)와 V(correlated)가 다 있고, with the amount ...의 with도 목적어를 갖고 있다.

The investigations revealed [that a person's level ... correlated with the amount ...]

S V O _____

② 좁히기 빈 자리가 없다 → 접속사. **that**절 통째로 **revealed**의 O다.

문장 끝의 **put in**을 보고 "**in** 뒤가 비었다"고 세면 안 된다.
the amount of practice [that was] put in — **put in**이 한 덩어리 분사다(CH04).
in은 **put**에 붙어 있지 목적어를 잃은 게 아니다.

[3] 관계대명사 — 전치사 뒤가 비었다 2022 고3 수능 21번 · 34%

① 자리 that 뒤는 scientists can learn from. S도 V도 있다. 그런데 from에서 문장이 끝난다.

... relevant experiences [that scientists can learn from ____]
 명사 S V ↑ 비었다

㉠ **좁히기** 전치사 뒤도 명사 자리다. **from** 뒤가 비었으니 불완전 → 관계대명사.
빈 자리의 임자는 **experiences**다.

문장 끝에 전치사가 혼자 남으면 그 뒤가 비어 있다. S·V·O만 세면 이 자리를 놓친다.

[4] 지시대명사 — 혼자 S 자리에 있다 2016.06 고3 38번 · 26%

㉠ 자리 That 뒤가 바로 **is**—동사다. 명사가 안 붙었다.

That is why people experience jet lag ...
S V C
그것 이다 사람들이 시차증을 겪는 이유

㉡ 줄히기 동사 앞자리는 주어이고, 혼자 그 자리에 있으니 **지시대명사**다. → "그것"

That is why ~는 앞 문장 전체를 That이 받는다. 무엇을 받는지는 앞 문장에 있다 — 문장 밖 단서다(CH14).

[5] 생략된 관계사 — 명사 + 명사 2022.06 고3 33번 · 34%

㉠ 자리 the way 다음에 **they**—명사가 또 온다. 그 사이에 아무 표지도 없다.

... around the way [(that) they think the process works]
전치사 명사 ─── 관계절: that이 사라졌다 ───

㉡ 줄히기 명사 뒤에 명사가 또 오면 그 사이에 뭔가 사라진 것이다.
they think the process works는 빈 자리가 없는 **완전한 절**이다 —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the way에 붙는 **관계부사(생략)**다. → **the way** = "how", 사라진 건 관계부사

the way they를 한 덩어리로 읽으면 **think**에서 막힌다.
그리고 이 문장의 진짜 V는 **design** 하나다 — **think**도 **works**도 관계절 안에 있다.

마무리 PART I에서 손에 쥔 여섯

도구	무엇을 보나	어디서
자리 넷	V가 무엇을 데려오나	CH02
-ing	앞에 be? 콤마? 명사?	CH03
-ed	앞에 be·have? 오른쪽에 V가 또?	CH04
to V	지워도 서나?	CH05
that	뒤에 빈 자리가 있나?	CH06

다섯 도구 모두 뜻을 한 번도 묻지 않았다. 형태만 보고 자리를 정했다.

다음 PART — PART II는 **덜어냄**이다. 자리를 정했으니 이제 **붙은 것을 지운다**.
CH05에서 쓴 "지워 본다"를 문장 전체에 쓴다.

덜어냄

붙은 것을 지운다 — 단, 지우면 안 되는 것이 있다

2

자리를 정했으면 **붙은 것**을 걷어낸다. 명사에 붙은 것과 문장에 붙은 것은 지워도 문장이
서 있다. 단, 지우면 문장이 무너지는 **다섯 가지**가 있다.

CHAPTER 07 명사에 붙은 것

명사 + 살

CHAPTER 08 문장에 붙은 것

문장 + 살

CHAPTER 09 지우면 안 되는 것

지우기 금지

명사에 붙은 것

BEFORE

주어가 길면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몰라 끝까지 읽고서야 동사를 찾았다. 그 사이에 나온 동사를 본동사로 착각했다.

AFTER

명사 하나만 남기고 뒤를 걷어낸다. 뼈대가 먼저 서고, 살은 나중에 붙인다.

이어받기 PART II가 시작된다

PART I에서는 자리를 찾았다. PART II에서는 찾은 자리만 남기고 지운다.
CH05에서 to V를 지워 봤다. 그 도구를 이제 문장 전체에 쓴다.

- CH07 명사에 붙은 것을 지운다 ← 지금
- CH08 문장에 붙은 것을 지운다
- CH09 지우면 안 되는 것

고3 문장이 긴 이유는 자리가 많아서가 아니다. 자리는 여전히 넷이고, 그 자리 하나하나가 길어졌을 뿐이다. 이 장이 그 길이를 걷어낸다.

문제 S와 V 사이가 열여덟 칸이다

2024.06 고3 모평 39번

27%

An **ability** to switch between the "pragmatic attitude" of everyday life and an "aesthetic attitude" **is** fundamental to a balanced life.

대부분이 이렇게 읽는다 — An ability to switch까지 읽고 switch를 동사로 잡는다.
그리고 between ... and ...를 따라가다 어디가 주어의 끝인지 읽는다.
is가 나왔을 때는 이미 앞을 잊었다.

An ability [to switch between the "pragmatic attitude" [of everyday life]
S ————— 지운다: 어떤 능력? —————
and an "aesthetic attitude"]
—————
is fundamental to a balanced life
V C

지우고 나면 An ability is fundamental. 네 단어다.

S는 An ability 하나이고, S 안의 나머지 열세 단어는 전부 "어떤 능력?"에 답하는 살이었다.

원리 명사에 붙는 것은 다섯 가지다

붙는 것	모양	예
전치사구	of · with · in · to · between ...	the attitude of everyday life
관계절	that · who · which + 빈 자리	Workers who tried to reject ...
분사	-ing · -ed	the language chosen to ...
to V	to + 동사원형	an ability to switch
동격절	명사 + that + 완전한 절	the notion that art specialized ...

전부 "어떤 ~?"에 답한다. 그리고 전부 명사 뒤에 온다.

PART I에서 하나씩 배운 것들이다 — CH03·CH04(분사) · CH05(to V) · CH06(관계절·동격).
이제 이것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명사를 늘린다**는 걸 본다.

동격절 CH06의 "완전"이 여기서 쓰인다

2019.09 고3 모평 39번

31%

The **notion** that art specialized in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was** particularly attractive in this light.

that 뒤 → art specialized in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S V L 전치사구, 목적어 있음 J ← 빈 자리가 없다 = 완전

완전하니 관계대명사가 아니다(CH06). 그런데 **앞이 명사(notion)**다.

→ 동격절. 그 명사가 무엇인지 풀어 쓴 것이니 **통째로 지운다**.

The notion [that art specialized in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S _____ 지운다: 무슨 생각? _____
was particularly attractive in this light
V C _____

CH06은 뒤만 봤다. 여기서 앞을 더한다. 규칙이 틀린 게 아니라 좁았다.

동격절을 만드는 명사는 정해져 있다 — **fact · idea · notion · belief · possibility · news.**

이 단어들은 규칙으로도 판정된다. 자주 나오니 눈에 익으면 빠를 뿐, 외우지 않아도 된다.

S에 붙든 O에 붙든 규칙은 같다

이 장은 **"명사에 붙는 것"**이지 "주어에 붙는 것"이 아니다.

앵커 문장에서도 S(**ability**)에 붙은 것과 C 안의 명사(**attitude**)에 붙은 것을 **같은 규칙으로** 지웠다.

the "pragmatic attitude" [of everyday life]
명사 L 지운다 J

S든 O든 C든, 명사이기만 하면 뒤에 붙는 다섯 가지가 똑같이 온다.

정리 여기까지 손에 질 것

개념 한 줄

명사에 붙은 것은 전부 "어떤 ~?"에 답한다. 지우면 명사만 남는다.

동작 한 줄

명사를 만나면 그 뒤가 어디서 끝나는지부터 본다. 끝까지가 한 자리다.

순서	무엇을
①	명사를 찾는다
②	그 뒤가 어디서 끝나는지 본다 — 다섯 가지 중 무엇이 붙었나
③	끝까지 지운다. 명사 하나만 남긴다
④	남은 것으로 뼈대를 읽는다

훈련 S에 붙은 것을 지우고 뼈대만 남겨라

지운 뒤 **S**가 몇 단어로 줄었는지 적어라.

1 2024.06 고3 모평 39번 27%

An ability to switch between the "pragmatic attitude" of everyday life and an "aesthetic attitude" is fundamental to a balanced life.

뼈대 : _____

S가 몇 단어로 : _____

2 2022.04 고3 학평 33번 31%

Workers who tried to reject this strict control by "going slow" were swiftly fired.

뼈대 : _____

S가 몇 단어로 : _____

3 2019.09 고3 모평 39번 31%

The notion that art specialized in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was particularly attractive in this light.

뼈대 : _____

S가 몇 단어로 : _____

4

2015.07 고3 학평 30번

30%

Your emotional attitude to such things as red meat, nuclear power, tattoos, or motorcycles drives your beliefs about their benefits and their risks.

빠대 : _____

S가 몇 단어로 : _____

5

2021.03 고3 학평 30번

27%

Those who limit themselves to Western scientific research have virtually ignored anything that cannot be perceived by the five senses and repeatedly measured or quantified.

빠대 : _____

S가 몇 단어로 : _____

해설

막힌 지점을 되짚는다

[1] to V + 전치사구 — 열여덟 칸 2024.06 고3 39번 · 27%

㉠ 자리

An ability 뒤에 to switch가 붙었다. 지워도 문장이 서는지 보면(CH05) — 선다. 앞이 명사다 → 형용사.
그 안에서 between A and B가 switch에 붙고, of everyday life가 attitude에 붙는다.

An ability [to switch between ... and an "aesthetic attitude"] is fundamental ...
S ————— 지운다 ————— V C

㉡ 줄히기

빠대: An ability is fundamental. — S가 15단어에서 2단어로 줄었다.

between A and B의 and가 묶은 둘을 확인해야 덩어리가 어디서 끝나는지 안다(CH12).
and 뒤가 an "aesthetic attitude"—명사이니 앞에서 명사를 찾으면 the "pragmatic attitude"다.

[2] 관계절 — S가 열한 단어 2022.04 고3 33번 · 31%

㉠ 자리

Workers 뒤에 who가 왔다. who 뒤는 tried to reject ...—S가 비었다 → 관계절(CH06).

Workers [who tried to reject this strict control by "going slow"] were swiftly fired
S ————— 지운다: 어떤 노동자? ————— V

㉡ 줄히기

빠대: Workers were fired. — 노동자들이 해고됐다.

지운 관계절이 어떤 노동자인지를 말한다. 빠대를 세운 뒤 관계절을 되살린다.

관계절 안의 tried를 본동사로 잡으면 were fired가 갈 곳이 없다.
who가 절을 하나 더 열었으니 V가 둘인 게 정상이다(CH10).

[3] 동격절 — 완전한데 명사 뒤다 2019.09 고3 39번 · 31%

㉠ 자리

that 뒤 art specialized in the expression ...는 완전하다(CH06). 그런데 앞이 명사 notion이다.
→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동격절.

The notion [that art specialized in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S ————— 지운다: 무슨 생각? —————
was particularly attractive in this light
V C —————

㉡ 줄히기

빠대: The notion was attractive. — S가 11단어에서 2단어로 줄었다.

in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안에도 of ~가 또 붙어 있다.
살 안에 살이 붙는다 — 그래도 통째로 지우면 되니 안쪽까지 셀 필요는 없다.

[4] 전치사구 + 나열 2015.07 고3 30번 · 30%

㉠ 자리 attitude 뒤에 **to such things as ...**가 붙고, 그 안에서 넷이 나열된다.

Your emotional attitude

S —————

[to such things as red meat, nuclear power, tattoos, or motorcycles]

———— 지운다: 어떤 태도? —————

drives your beliefs [about their benefits and their risks]

V O ————— O에도 붙는다 —————

㉡ 줄히기 **빠대: Your attitude drives your beliefs.** — S에도 O에도 살이 붙었다. 규칙은 같다.

나열이 길어도 **or**가 묶은 것까지가 한 덩어리다(CH12). 콤마에서 끊지 마라.

[5] 살이 S에도 O에도 2021.03 고3 30번 · 27%

㉠ 자리 Those 뒤에 **who ~**(관계절), **anything** 뒤에 **that ~**(관계절). 양쪽에 붙었다.

Those [who limit themselves to Western scientific research] have ignored

S ————— 지운다 ————— V

anything [that cannot be perceived ... and ... measured or quantified]

O ————— 지운다 —————

㉡ 줄히기 **빠대: Those have ignored anything.** — 네 단어다.

Those는 그 자체로 명사(대명사)다. **Those who ~**를 한 덩어리 표현으로 외우지 마라 —

Those(명사) + **who ~**(관계절)로 갈리는 게 보여야 다른 문장에서도 쓴다.

다음 장 — CH08은 **문장에 붙은 것**이다. 명사가 아니라 **문장 전체**에 붙는 살을 지운다.
붙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 — 문두와 문미다.

문장에 붙은 것

BEFORE

문장 앞에 긴 덩어리가 오면 그걸 주절로 읽었다. 그러다 뒤에 진짜 주어와 동사가 또 나와 무너졌다.

AFTER

접속사로 시작하면 주절이 아니다. 콤마까지 지우면 진짜 주절이 남는다.

이어받기 붙는 자리가 다르다

CH07은 명사에 붙은 것을 지웠다. 이 장은 문장 전체에 붙은 것을 지운다.

	무엇에 볼나	무엇에 답하나	어디에
CH07	명사	어떤 ~?	그 명사 바로 뒤
CH08	문장 전체	언제·어디서·왜·어떻게	문두와 문미

들을 가르치는 법은 앞을 보는 것이다. 전치사구 앞이 명사면 CH07,
동사이거나 문장 맨 앞이면 CH08이다. 다만 **처분은 같다** — 둘 다 지운다.

문제 문두 열세 단어를 주절로 읽는다

2023.09 고3 모평 38번

26%

Because the manipulation of digitally converted sounds meant the reprogramming of binary information, **editing operations could be performed** with millisecond precision.

대부분이 이렇게 읽는다 — the manipulation ... meant the reprogramming ...을 주절로 읽는다.
S도 V도 O도 있으니 그럴듯하다. 그리고 콤마 뒤에서 editing operations could be performed를 만난다.
주어와 동사가 또 나왔다. 여기서 멈춘다.

[Because the manipulation ... meant the reprogramming of binary information,]
 └ 접속사로 시작한다 → 주절이 아니다. 콤마까지 지운다 ─┐
 editing operations could be performed [with millisecond precision]
 S V └ 문미: 지운다 ─┐

Because가 맨 앞에 있다. 접속사로 시작하는 절은 절대 주절이 아니다.
아무리 길어도, 안에 S·V·O가 다 있어도 마찬가지다. **кома까지가 통째로 살이다.**

원리 문두에 오는 것은 넷뿐이다

문두에	예
부사	Thus, / However, / In addition,
전치사구	In some cases, / After victory,
부사절 (접속사로 시작)	Because ..., / When ..., / Though ...,
분사구문	Generally speaking, / Starting at \$200,

넷이 전부 콤마로 끝난다. 그래서 문두 콤마가 강력한 표지다.

문두 콤마를 만나면 거기까지가 살이다. 그다음이 진짜 S다.

넷 중 **부사절만 안에 S·V를 갖는다**. 그래서 부사절이 제일 잘 속인다 —
길고, 완전하고, 주절처럼 보인다. 표지는 **하나, 맨 앞의 접속사다**.

문미 뒤에도 같은 것이 붙는다

2020.04 고3 학평 39번

30%

The bacterium will swim in a straight line **as long as** the chemicals it senses seem better now than those it sensed a moment ago.

The bacterium will swim [in a straight line]
S V └ 전치사구 ─┘
 [as long as the chemicals it senses seem better now ...]
 └ 부사절 ─┘

→ 뼈대: The bacterium will swim. 세균은 헤엄친다.

문미에 **전치사구 하나, 부사절 하나**가 붙었다. 둘 다 지워도 문장이 선다.

문미 부사절은 **콤마가 없을 때가 많다**. 그래서 표지는 콤마가 아니라 **접속사다** —
as long as · because · while · although · so that.

문두와 문미에 동시에 붙는다

2025 고3 수능 37번

33%

If one bird startles and flies off, others will follow, not waiting around to assess whether the threat is real.

[If one bird startles and flies off,] others will follow,
 └── 부사절: 지운다 ──┬ S V
 └── 분사구문: 지운다 ──┘
 [not waiting around to assess whether the threat is real]

→ 뼈대: Others will follow. 다른 새들이 따라간다.

열아홉 단어가 세 단어로 줄었다. 앞뒤를 다 걷어내면 주절만 남는다.

정리 여기까지 손에 쥘 것

개념 한 줄

문장에 붙은 것은 문두와 문미에 몰린다.

동작 한 줄

문두에 종속접속사절·전치사구·분사구문이 있으면 그 끝까지 넘긴다(But·Yet 같은 등위접속사는 지우지 않는다). 문미의 전치사구·부사절·분사구문도 지운다.

자리	표지	처분
문두	кома — 부사 · 전치사구 · 접속사 · 분사구문	кома까지 지운다
문미	전치사 · 접속사 · кома + 분사	끝까지 지운다
명사 바로 뒤	—	CH07의 뒀

훈련 문장에 붙은 것을 지우고 주절만 남겨라

지운 뒤 주절이 몇 단어인지 적어라.

1

2023.09 고3 모평 38번

26%

Because the manipulation of digitally converted sounds meant the reprogramming of binary information, editing operations could be performed with millisecond precision.

지운 것 : _____

주절 : _____

2

2013.03 고3 학평 33번

28%

When the psychologist Barlett tested these same men on other kinds of detail, their memory wasn't better than the average person's.

지운 것 : _____

주절 : _____

3

2022.10 고3 학평 32번

33%

Though it is formed from plant matter, the highly reduced carbon compounds that result are often toxic to living protoplasm.

지운 것 : _____

주절 : _____

4

2025 고3 수능 37번

33%

If one bird startles and flies off, others will follow, not waiting around to assess whether the threat is real.

지운 것 : _____

주절 : _____

5

2020.04 고3 학평 39번

30%

The bacterium will swim in a straight line as long as the chemicals it senses seem better now than those it sensed a moment ago.

지운 것 : _____

주절 : _____

해설

막힌 지점을 되짚는다

[1] 문두 부사절 — 열세 단어 2023.09 고3 38번 · 26%

㉠ 자리 맨 앞 **Because**—접속사다. 접속사로 시작하면 **주절이 아니다**. 콤마까지 지운다.

[Because the manipulation ... meant the reprogramming of binary information,]
 └────────── 지운다 ─────────┘
 editing operations could be performed [with millisecond precision]
 S V └ 지운다 ─┘

㉡ 줄히기 **주절: Editing operations could be performed.** — 다섯 단어다.
 지운 부사절이 **왜 그런지**를 말한다. 뼈대를 세운 뒤 되살린다.

부사절 안이 완전해도(**the manipulation ... meant ...** = S V O) **주절이 되지는 않는다**.
 완전한 것과 주절인 것은 다르다.

[2] 문두 부사절 + 문미 비교 2013.03 고3 33번 · 28%

㉠ 자리 맨 앞 **When**—접속사다. 콤마까지 지운다.

[When the psychologist Barlett tested these same men on other kinds of detail,]
 └────────── 지운다 ─────────┘
 their memory wasn't better than the average person's
 S V C └ 짝: 못 지운다 (CH09) ─┘

㉡ 줄히기 **주절: Their memory wasn't better than the average person's.**

문미의 **than ~**은 **지우면 안 된다**. **better**의 짝이기 때문이다 —
 지우면 "무엇보다"가 사라져 뜻이 반쪽이 된다. 다음 장(CH09)이 이것을 다룬다.

[3] 문두 부사절 + S에 관계절 2022.10 고3 32번 · 33%

㉠ 자리 맨 앞 **Though**—접속사다. 그리고 주절의 S에도 관계절이 붙어 있다(CH07).

[Though it is formed from plant matter,]
 └──────── 지운다 (CH08) ─────────┘
 the highly reduced carbon compounds [that result] are often toxic ...
 S ───────────────────────────────────┘ L CH07 ┘ V C

㉡ 줄히기 **주절: The compounds are toxic.** — CH07과 CH08을 한 문장에서 같이 쓴다.

that result는 관계절인데 **두 단어뿐**이다(**result**가 동사). 짧다고 못 보고 넘기면
compounds가 어디서 끝나는지 놓친다.

[4] 앞뒤 둘 다 — 열아홉 단어가 셋으로 2025 고3 수능 37번 · 33%

㉠ 자리 문두 If ~, (부사절)와 문미, not waiting ... (분사구문). 둘 다 지운다.

[If one bird startles and flies off,] others will follow,
 ┌ 지운다 ─┐ S V
 [not waiting around to assess whether the threat is real]
 ┌ 지운다 (분사구문) ─┐

㉡ 줄히기 주절: Others will follow. — 세 단어다.

whether the threat is real은 assess의 O다 — 지운 덩어리 안에 있으니 따로 셀 필요 없다.

[5] 문미 부사절 — 콤마가 없다 2020.04 고3 39번 · 30%

㉠ 자리 문미에 as long as — 접속사다. 콤마가 없어도 접속사가 있으면 절이 하나 더 열린 것이다.

The bacterium will swim [in a straight line]
 S V ┌ 지운다 ─┐
 [as long as the chemicals it senses seem better now ...]
 ┌ 지운다 ─┐

㉡ 줄히기 주절: The bacterium will swim. — 네 단어다.

부사절 안의 the chemicals it senses는 생략된 관계대명사다(CH06) —
 the chemicals [that] it senses. 지운 덩어리 안이라 지금은 안 봐도 된다.

다음 장 — CH09는 지우면 안 되는 것이다. 두 장 내내 "지워라"만 했는데,
 이 장에서 그 규칙이 깨지는 자리를 만난다.

지우면 안 되는 것

BEFORE

배운 대로 지웠는데 뜻이 반쪽이 되거나 정반대가 됐다. 무엇을 지우면 안 되는지 몰랐다.

AFTER

지우기 전에 **꼭부터 본다**. 앞쪽 신호어가 있으면 뒤쪽은 살이 아니라 뼈대의 일부다.

이어받기 여기서 규칙이 깨진다

장	무엇을
CH07	명사에 붙은 것을 지운다
CH08	문장에 붙은 것을 지운다
CH09	그런데 지우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두 장 내내 "지워라"만 했다. 이 장에서 **그 규칙이 깨지는 자리를 만난다**.

깨지는 이유는 하나다 — **어떤 말은 혼자 못 선다**. 앞쪽이 나오면 뒤쪽이 반드시 따라온다.
그 뒤쪽을 살로 보고 지우면 **앞쪽이 홀로 남아** 문장이 부러진다.

문제 지웠더니 뜻이 정반대가 된다

2016 고3 수능 38번

29%

Money — beyond the bare minimum necessary for food and shelter — is **nothing more than** a means to an end.

배운 대로 지우면 이렇게 된다 — 대시 두 개 사이는 삽입이니 지운다(맞다).

그리고 문미의 **than a means to an end**를 **전치사구처럼 보고** 지운다.

남는 것은 **Money is nothing.** →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반대다.

Money [— beyond the bare minimum ... —] is nothing more than a means to an end
S └ 삽입: 지운다 (CH11) ┘ V C _____
more가 있으면 than이 따라온다 — 한 덩어리다

nothing more than은 "~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 덩어리다.

→ "돈은 목적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지운 것과 뜻이 완전히 다르다.

원리 앞쪽을 보면 뒤쪽을 찾아라

앞쪽	뒤쪽	뜻
so	that	너무 ~해서 ...하다
such	that	//
more · -er	than	~보다 더
as	as	~만큼
not only	but (also)	~뿐 아니라 ...도
rather	than	~보다는
not	but	~가 아니라 ...다

지우려는 덩어리 안에 짝의 뒤쪽이 있고, 앞쪽이 문장에 남는다면 — 지우면 안 된다.

판정 순서

① 지울 후보를 찾는다 (CH07·CH08) → ② **짝을 확인한다** → ③ 지운다 → ④ 남은 것을 읽는다

②를 건너뛰면 ④에서 걸린다. 그러니 지우기 전에 짝부터 본다.

함정 짝은 맞는데 비교가 아니다

more와 than이 다 있어도 **비교가 아닐 때가 있다**. 앞에 no-nothing이 붙으면 강조다.

덩어리	뜻	비교인가
no more than · nothing more than	~에 지나지 않는, 겨우	× 강조
no less than	무려, ~씩이나	× 강조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다 B	△ 짝이 as
rather than	~보다는	○

more만 보고 "더 ~하다"로 읽으면 뜻이 정반대가 된다. 앵커 문장이 그랬다.
앞에 no가 붙었는지부터 본다.

짜이 문장 안에 없을 때

more--er가 있는데 **than**이 안 보이는 문장이 있다. 짝을 안 쓴 게 아니라 생략된 것이다.

2019.07 고3 학평 40번

27%

In fact, there was a slight tendency for players to shoot **better** after missing their last shot.

... players to shoot better [than ____] after missing their last shot
↑ 무엇보다 더 잘?

문장 안을 다 뒤졌는데 짝이 없으면 문장 밖을 본다(CH14).

여기서는 앞 문장이 말해 준다 — 직전 슛을 넣었을 때보다.

문장 밖에도 없으면 **거기가 상식으로 채우는 자리다**. 짝이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필수 동사가 요구하는 전치사구

전치사구라고 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동사가 요구하면 **빠대**의 일부다.

2016.06 고3 모평 32번

35%

These waters presented no problem to perfectly adapted seagoing birds, but they **prevented** humans **from** making any kind of safe landing.

they prevented humans from making any kind of safe landing
S V O — from은 prevent가 요구한다. 못 지운다 —

prevent A from B는 **한 덩어리**다. from ~을 지우면 "그들이 인간을 막았다"에서 끝나
무엇을 막았는지가 사라진다.

같은 꼴이 여럿이다 — keep A from B · stop A from B · distinguish A from B ·
deprive A of B · provide A with B.

이 동사들은 규칙으로도 판정된다(뒤에 O가 오고 전치사가 붙는다).

자주 나오니 눈에 익으면 빠를 뿐, 외우지 않아도 된다.

정리 여기까지 손에 질 것

개념 한 줄

짝을 반쪽 내면 빠대가 부러진다.

동작 한 줄

지우려는 덩어리 안에 짝의 뒤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

지우면 안 되는 것	표지
짝의 뒤쪽	앞에 so · such · more · -er · as · not only · rather
강조 덩어리	no · nothing + more/less than
동사가 요구한 전치사구	prevent/keep/stop A from B 꼴
부정어	not · never · no — 지우면 방향이 뒤집힌다

훈련 지우면 안 되는 것을 찾아라

지울 후보를 먼저 표시하고, 그중 **딱 때문에** 못 지우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라.

1

2016 고3 수능 38번

29%

Money — beyond the bare minimum necessary for food and shelter — is nothing more than a means to an end.

지울 것 : _____

못 지울 것 : _____

2

2025.05 고3 학평 39번

26%

Social scientists find it harder to agree than do natural scientists.

지울 것 : _____

못 지울 것 : _____

3

2019.09 고3 모평 36번

35%

Sovereignty and citizenship thus require not only borders in space, but also borders in time.

지울 것 : _____

못 지울 것 : _____

4

2016.06 고3 모평 32번

35%

These waters presented no problem to perfectly adapted seagoing birds, but they prevented humans from making any kind of safe landing.

지울 것 : _____

못 지울 것 : _____

5

2019.07 고3 학평 40번

27%

In fact, there was a slight tendency for players to shoot better after missing their last shot.

지울 것 : _____

못 지울 것 : _____

해설

막힌 지점을 되짚는다

[1] 강조 덩어리 — 비교가 아니다 2016 고3 수능 38번 · 29%

㉠ 자리

지을 후보는 둘이다 — 대사로 둘러싸인 삽입 — **beyond ...** —와 문미의 비교 덩어리 **more than a means to an end**.

Money [— beyond the bare minimum necessary for food and shelter —]

S ┌─────────── 지운다 ───────────┐

is nothing more than a means to an end

V C ─────────── ← more의 짝, 못 지운다

㉡ 줄히기

nothing more than은 “~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 덩어리다.

지우면 **Money is nothing.** — 정반대 뜻이 된다.

앞에 **nothing**이 붙었으니 비교가 아니라 강조다. **more**만 보고 판정하면 안 된다.

[2] 비교 + 도치 2025.05 고3 39번 · 26%

㉠ 자리

harder가 있으니 **than**을 찾는다. 문미에 있다 — **than do natural scientists**.

Social scientists find it harder to agree [than do natural scientists]

S V O C ┌ 짝: 못 지운다 ─┐

가목적어 진짜 O = to agree ↑ 도치

㉡ 줄히기

than 뒤가 **do natural scientists**—어순이 뒤집혔다. 기출에 드문 어순이라 이 책은

따로 다루지 않는다. 놀라지 말고 **V**를 먼저 잡고 **S**를 뒤에서 집으면 된다 — **do** ← **natural scientists**.

find it harder to agree의 **it**은 가목적어다. 진짜 O는 **to agree**—뒤에 있다.

it이 혼자 O 자리에 있고 뒤에 **to V**가 오면 그 **to V**가 진짜 O다(CH05).

[3] not only ~ but also 2019.09 고3 36번 · 35%

㉠ 자리

not only를 봤으면 **but**을 찾아라. 뒤에 **but also borders in time**이 있다.

Sovereignty and citizenship thus require not only borders in space,

S ┌─────────── V ┌─────────── 앞쪽 ───────────┐

but also borders in time

┌─────────── 뒤쪽: 못 지운다 ───────────┐

㉡ 줄히기

not only A but also B는 **A와 B** 둘 다 말하는 것이다. 하나를 지우면 절반만 남는다.

in space와 **in time**은 전치사구지만 **대비의 축**이다 — 지우면 무엇과 무엇을 대비하는지가 사라진다.

[4] 동사가 요구한 from 2016.06 고3 32번 · 35%

㉠ 자리 prevented humans from making ... — from은 문미 전치사구처럼 보이지만 prevent가 요구한 것이다.

they prevented humans from making any kind of safe landing
S V O └─ 못 지운다 ─┘

㉡ 좁히기 They prevented humans. 만으로도 SVO 빠대는 선다. 그러나 원문 prevent A from V의 from making ...이 A가 하지 못하게 된 동작을 채운다 — 이걸 지우면 무엇을 막았는지가 빠져 빠대가 반쪽이 된다.

문미에 있고 전치사로 시작한다고 다 살이 아니다. 앞 동사가 그것을 요구하는지 본다.

[5] 짝이 문장 밖에 있다 2019.07 고3 40번 · 27%

㉠ 자리 better가 있는데 문장 안에 than이 없다. 문미 after missing their last shot은 부사구다.

... a tendency for players to shoot better [than ____] [after missing their last shot]
↑ 무엇보다? └─ 지운다 ─┘

㉡ 좁히기 than이 이 문장에 안 보인다. 비교 기준은 이 한 문장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직전 슛을 놓친 뒤 더 잘 쏘는 경향이 있었다는 데까지가 이 문장이 말하는 전부다.

문장 안에 없으면 문장 밖을 본다(CH14). 밖에도 없으면 상식으로 채운다.
짝이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마무리 PART II에서 손에 쥔 것

- | | |
|--------------|-------------------------------|
| ① 지을 후보를 찾는다 | 명사에 붙었나(CH07) · 문장에 붙었나(CH08) |
| ② 짝을 확인한다 | 앞쪽 신호어가 있으면 뒤쪽을 찾는다 |
| ③ 지운다 | |
| ④ 남은 것을 읽는다 | 짝을 잃은 말이 있으면 되살린다 |

㉡를 건너뛰면 ㉠에서 걸린다.

다음 PART — PART III는 이어붙임이다. 지우고 나면 S와 V만 남는데,
고3 문장에서는 그 둘이 멀다. 떨어진 것을 잇는다.

이어붙임

떨어진 것을 잇는다 — S와 V, 삽입 너머, and가 묶은 둘



지우고 나면 S와 V만 남는다. 그런데 둘이 멀다. 삽입을 넘고 and가 묶은 둘을 확인해 **S**와 **V**를 붙인다. 여기서 뼈대가 완성된다.

CHAPTER 10	S는 V를 기다린다	S ... V
CHAPTER 11	삽입을 넘어라	[삽입]
CHAPTER 12	and는 무엇을 묶는가	A and B

S는 V를 기다린다

BEFORE

주어를 잡고 바로 뒤를 동사로 읽었다. 그런데 그건 살에 붙은 동사였고, 진짜 V는 열 칸 뒤에 있었다.

AFTER

S를 잡으면 V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사이에 나오는 동사는 전부 살 안의 것이다.

이어받기 PART III가 시작된다

PART II에서 **살을 지웠다**. 지우고 나면 S와 V만 남는다. 그런데 고3 문장에서는 **그 둘이 멀다**. 이 파트는 떨어진 것을 잇는다.

CH10 S와 V — 떨어진 둘을 잇는다 ← 지금
CH11 삽입 — 표지 사이를 넘는다
CH12 and — 무엇과 무엇을 묶었나

CH10은 **지우지 않는다**. 지우는 건 PART II에서 끝났다.
여기서는 **넘기면서 센다** — S를 잡고 V가 나올 때까지.

문제 두 번째 단어를 동사로 읽는다

2013.06 고3 모평 35번

34%

Leadership that attempts to deliver in terms of fixing any of these **can only fail**.

대부분이 이렇게 읽는다 — **Leadership** 다음 **attempts**를 동사로 잡는다.
"리더십이 시도한다"까지 말이 된다. 그리고 끝에서 **can only fail**을 만난다.
동사가 또 나왔다.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른 채 멈춘다.

Leadership [that attempts to deliver in terms of fixing any of these] can only fail
S ————— 관계절, 넘긴다 ————— V
————— S가 V를 열네 칸 기다린다 —————

that 뒤 **attempts**는 관계절 안의 동사다(CH06). **Leadership**을 잡았으면
그 뒤 관계절을 넘기고 **진짜 V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V는 **can only fail**이다.

원리 S를 잡으면 V를 기다린다

S를 만나면 바로 뒤를 동사로 읽지 않는다. S에 붙은 살(CH07)이 먼저 올 수 있다.

S [— 붙은 살: 관계절·분사·전치사구·동격 —] V
그 안에도 동사가 있다(가짜) 진짜 V

살 안의 동사를 본동사로 잡으면 진짜 V가 갈 곳을 잃는다.

그래서 S를 잡은 순간부터 V가 나올 때까지 세는 것이 이 장의 동작이다.

끝이 어디인가. 붙은 살의 종류가 끝을 알려준다 —

관계절은 그 절의 동사까지, 분사는 분사구 끝까지, 전치사구는 그 명사까지.

살이 닫히는 곳 다음에 진짜 V가 온다.

동사를 세면 문장이 보인다

S와 V가 몇 때, 동사가 몇 개여야 맞는지를 세면 길을 잃지 않는다. 절 하나에 진짜 동사(정동사)는 하나다. 절을 하나 더 붙이려면 연결 장치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대략 이런 관계가 선다 —

정동사 수 $\approx$ 연결 장치 수 + 1

연결 장치는 접속사만이 아니다. 관계사(who-which-that), 의문사(what-how-why),

그리고 구두점 — 세미콜론 · 콜론 · 대시도 절을 잇는다.

고3 미사용 풀에서 구두점이 절을 이은 문장이 600개가 넘는다. 드문 예외가 아니다.

진단 안 맞을 때가 오히려 정보다

이 공식은 맞을 때보다 안 맞을 때 쓸모가 있다.

세어 보니	무슨 뜻인가	할 일
정동사 = 연결 + 1	정상	그대로 읽는다
정동사가 더 많다	㉠ 가짜 동사를 썼다(준동사) ㉡ 연결 장치가 생략됐다	가짜부터 찾고, 없으면 생략을 의심
정동사가 더 적다	그 연결 장치는 절이 아니라 단어를 이었다	and가 무엇을 묶었나 본다(CH12)

㉡의 생략은 CH06에서 봤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사라진 자리 —

the way (that) we communicate · I think (that) he is right.

고3 풀에 축약·생략 관계절이 2,000개다. 공식이 안 맞는데 가짜 동사도 없다면 십중팔구 여기다.

세어 보자 세미콜론이 절을 잇는다

2016 고3 수능 34번 **27%**

Readers would not simply attend to the poet's work; they would be attracted to the greatness of his personality.

Readers would attend ... ; they would be attracted ...
정동사 ① L 연결 ① 정동사 ②

동사처럼 보이는 것: **would attend · would be attracted** → 정동사 2개

연결 장치: ; → 1개. 2 = 1 + 1 ✓ 정상이다.

;가 없었다면 **and**나 마침표가 있어야 한다. **세미콜론은 마침표를 반만 찍은 것이다.**

정리 여기까지 손에 쥘 것

개념 한 줄

S가 길다는 건 V가 멀다는 뜻이다.

동작 한 줄

S를 잡고, 붙은 살을 넘기며, 진짜 V가 나올 때까지 센다.

순서	무엇을
①	S를 잡는다
②	붙은 살을 넘긴다 — 살이 달히는 곳까지
③	진짜 V를 만난다
④	안 풀리면 동사 수 = 연결 수 + 1 로 계산한다

훈련 S를 잡고 진짜 V를 찾아라

S와 V 사이가 몇 칸인지, 그리고 정동사와 연결 장치가 몇 개인지 적어라.

1 2013.06 고3 모평 35번 **34%**

Leadership that attempts to deliver in terms of fixing any of these can only fail.

S / V : _____

사이 칸 : _____

2

2022 고3 수능 38번

30%

Introduction of robots into factories, while employment of human workers is being reduced, creates worry and fear.

S / V : _____

사이 칸 : _____

3

2016 고3 수능 34번

27%

Readers would not simply attend to the poet's work; they would be attracted to the greatness of his personality.

정동사 / 연결 : _____

검산 : _____

4

2011 고3 수능 29번

33%

Therefore the tendency to deny all previous values in favor of their opposites is just as much of an exaggeration as the earlier onesidedness.

S / V : _____

사이 칸 : _____

5

2021.06 고3 모평 36번

30%

The remarkable finding is that distances from an ordinary location to a landmark are judged shorter than distances from a landmark to an ordinary location.

정동사 / 연결 : _____

검산 : _____

해설

막힌 지점을 되짚는다

[1] 관계절이 열네 칸 2013.06 고3 35번 · 34%

㉠ 자리 Leadership 다음이 **that**—관계절이 열린다(CH06). 그 절이 닫힐 때까지 넘긴다.

Leadership [that attempts to deliver in terms of fixing any of these] can only fail
S ————— L CH06 J ————— V

㉡ 줄히기 관계절 안의 **attempts**는 가짜가 아니라 **그 절의 동사**다. 진짜 V는 **can only fail**.

S-V 14칸. 정동사 2(**attempts·can fail**) = 연결 1(**that**) + 1 ✓

to deliver도 **fixing**도 V가 아니다 — **to**가 붙었고(CH05), **be**가 없다(CH03).
동사처럼 보이는 것 넷 중 진짜는 둘이다.

[2] 삽입이 S와 V를 끊는다 2022 고3 수능 38번 · 30%

㉠ 자리 **while**은 종속절을 여는 접속사다(CH08). **while employment of human workers is being reduced**를 한 절로 묶어 넘기고, 주절의 S **Introduction**과 V **creates**를 잇는다.

Introduction [of robots into factories],
S ————— L CH07 J
[while employment of human workers is being reduced,] creates worry and fear
————— 삽입: 넘긴다 ————— V O

㉡ 줄히기 **is being reduced**는 삽입 절 안의 동사다. 진짜 V는 **creates**. **S-V 13칸**.

coma 두 개 사이의 **while** 절을 주절로 읽으면 **creates**가 갈 곳을 잃는다.
삽입은 넘긴다 — CH11에서 정식으로.

[3] 세미콜론 검사 2016 고3 34번 · 27%

㉠ 자리 ;가 절을 둘로 나눈다. 앞뒤가 각각 완전한 문장이다.

Readers would not simply attend to the poet's work ; they would be attracted ...
S V ① ————— 연결 S V ②

㉡ 줄히기 정동사 2 = 연결 1(;) + 1 ✓ — **둘 다 진짜다**. 하나를 가짜로 지우면 안 된다.

; 뒤가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아도 **문장 두 개**다. 세미콜론은 그 표시다.

[4] to V + 전치사구가 S를 늘린다 2011 고3 29번 · 33%

㉠ 자리 the tendency 뒤에 to deny ...(형용사적 to V, CH05)와 in favor of ...(전치사구)가 붙었다.

Therefore the tendency [to deny all previous values] [in favor of their opposites]

S _____ 「 _____ 넘긴다 _____ 」 「 _____ 넘긴다 _____ 」

is just as much of an exaggeration as ...

V

㉡ 줄이기 진짜 V는 is. S-V 11칸. 뒤의 as much ... as는 짝이라 못 지운다(CH09).

to deny를 동사로 잡으면 is가 갈 곳을 잃는다. to가 붙으면 V가 아니다.

[5] be judged가 진짜 V 2021.06 고3 36번 · 30%

㉠ 자리 The remarkable finding 다음 is—바로 V다. 그런데 that 뒤에 또 문장이 온다.

The remarkable finding is [that distances [from ... to ...] are judged shorter than ...]

S V C _____

㉡ 줄이기 정동사 2(is:are judged) = 연결 1(that) + 1 ✓

that절 안의 S는 distances인데 from ... to ...가 붙어 그 안에서 또 S-V가 멀다.

절 안에 절이 있으면 세기를 다시 시작한다. 바깥 절의 검산과 안쪽 절의 검산은 따로 한다.

다음 장 — CH11은 삽입이다. S와 V 사이에 콤마 쌍·대시 쌍·괄호가 끼면 그 사이를 넘긴다. 이 장의 [2]에서 미리 봤다.

삽입을 넘어서라

BEFORE

문장 중간에 콤마나 대시로 끼어든 덩어리를 읽다가 흐름을 놓쳤다. 그다음에 어디로 이어지는지 몰랐다.

AFTER

여는 표지를 보면 닫는 표지를 찾는다. 그 사이를 넘기고 앞뒤를 바로 잇는다.

이어받기 CH10과 무엇이 다른가

장	어디에 끼나	할 일
CH10	S와 V 사이	S를 잡고 V를 기다린다
CH11	문장 아무 데나	여는 표지를 보면 닫는 표지를 찾는다

CH10에서는 붙은 살의 종류로 끝을 판정했다. 삽입은 그럴 필요가 없다 — 여는 표지와 닫는 표지가 같기 때문이다.

넘긴다 ≠ 지운다. PART II에서 지운 것은 뼈대에 없는 살이라 안 읽어도 됐다.

삽입은 읽는 순서에서 뒤로 미루는 것이지 버리는 게 아니다.

지운 것은 필요한 것만 되살리지만(CH15), 넘긴 것은 반드시 돌아와서 읽는다.

문제 다시 사이를 주절로 읽는다

2022 고3 수능 21번

34%

In some cases lay people — farmers, fishermen, patients, native peoples — may have relevant experiences that scientists can learn from.

대부분이 이렇게 읽는다 — lay people — farmers, fishermen ...을 따라가다 native peoples를 주어로 착각한다. 그리고 may have가 나왔을 때 주어가 무엇이었는지 잊는다.

In some cases lay people
S —

[— farmers, fishermen, patients, native peoples —] may have ...
└ 삽입: 여는 대시 → 닫는 대시, 통째로 넘긴다 ─┘ V

— ... — 사이는 lay people이 누구인지 예를 든 것이다(동격).

넘기고 읽으면 lay people may have experiences. — S와 V가 바로 붙는다.

원리 여는 표지는 반드시 닫는다

삽입의 표지는 쌍으로 온다.

여는 표지	닫는 표지
콤마 ,	콤마 ,
대시 —	대시 — (또는 문장 끝)
괄호 (	괄호)
, which · , who	콤마 (또는 문장 끝)

여는 표지를 보면 짝을 먼저 찾는다. 그 사이는 통째로 넘기고 앞뒤를 잇는다.

콤마는 삽입도 되고 나열도 된다. 가르는 법은 CH12 — 빼도 문장이 서면 삽입, 빼면 무너지면 나열이다.

, which 관계절 삽입 — 닫는 표지가 콤마다

2018.04 고3 학평 34번 34%

But a better plan would be to allow our subconscious mind, **which does know the best way to move,** to get on with moving.

... allow our subconscious mind
V O _____
[, which does know the best way to move,] to get on with moving
_____ 삽입: 넘긴다 _____ C

, which ~,가 our subconscious mind에 붙은 삽입 관계절이다. 넘기면 — allow our subconscious mind to get on with moving — allow A to V가 바로 붙는다.

, which는 여는 표지, 그 절 끝의 콤마가 닫는 표지다. 닫는 콤마가 없으면 문장 끝까지가 삽입이다.

삽입 안에 짝이 갇힌다

2019.07 고3 학평 31번 25%

An accident implied an unfortunate act of God, not something that could — **or should** — be prevented.

... something [that could [— or should —] be prevented]
조동사 L 삽입 J 본동사
could _____ be prevented

— or should —가 could와 be prevented 사이에 끼었다.

넘기면 that could be prevented — 조동사와 본동사가 바로 붙는다.

삽입은 짝의 한가운데도 끊는다. could ... be prevented가 원래 한 덩어리 V인데 그 사이에 — or should —가 들어온 것이다. 넘기면 V가 복원된다.

정리 여기까지 손에 쥘 것

개념 한 줄

연 것은 반드시 닫는다.

동작 한 줄

콤마·대시·괄호가 열리면 짝을 찾아 그 사이를 통째로 넘긴다. 지우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이다.

표지	넘기는 법
콤마 쌍	여는 콤마 → 닫는 콤마까지
대시 쌍	여는 대시 → 닫는 대시(또는 문장 끝)까지
, which/who	그 관계절 끝 콤마까지
괄호	닫는 괄호까지
—	넘긴 것은 반드시 돌아와 읽는다

훈련 삽입을 넘기고 앞뒤를 이어라

삽입을 []로 표시하고, 넘긴 뒤 S와 V가 무엇으로 붙는지 적어라.

1

2022 고3 수능 21번

34%

In some cases lay people — farmers, fishermen, patients, native peoples — may have relevant experiences that scientists can learn from.

삽입 : _____

붙는 S-V : _____

2

2018.04 고3 학평 34번

34%

But a better plan would be to allow our subconscious mind, which does know the best way to move, to get on with moving.

삽입 : _____

붙는 것 : _____

3

2019.07 고3 학평 31번

25%

An accident implied an unfortunate act of God, not something that could — or should — be prevented.

삽입 : _____

붙는 것 : _____

4

2014 고3 수능 34번

26%

Like many errors and biases that seem irrational on the surface, auditory looming turns out, on closer examination, to be pretty smart.

삽입 : _____

붙는 S-V : _____

5

2019.10 고3 학평 29번

33%

An individual neuron sending a signal in the brain uses as much energy as a leg muscle cell running a marathon.

삽입/수식 : _____

붙는 S-V : _____

해설

막힌 지점을 되짚는다

[1] 대시 쌍 — 동격을 넘긴다 2022 고3 21번 · 34%

㉠ 자리 lay people 다음 대시가 열린다. 짝인 닫는 대시를 찾는다 — native peoples 뒤다.

lay people [— farmers, fishermen, patients, native peoples —]
S ———— ┌——— 넘긴다 (동격) ———┐
may have relevant experiences ...
V

㉡ 줄히기 넘기면 lay people may have experiences. — S와 V가 붙는다.
삽입은 lay people이 누구인지 예를 든 것이라 돌아와 읽으면 뜻이 채워진다.

native peoples를 주어로 잡으면 may have가 갈 곳을 잃는다.
대시 사이는 주어가 될 수 없다 — 이미 열린 대시 안이다.

[2] , which — 관계절 삽입 2018.04 고3 34번 · 34%

㉠ 자리 our subconscious mind 뒤 , which가 삽입 관계절을 연다. 닫는 콤마까지 넘긴다.

... allow our subconscious mind
V O ————
[, which does know the best way to move,] to get on with moving
└——— 넘긴다 ———┘ C

㉡ 줄히기 넘기면 allow our subconscious mind to get on ... — allow A to V(SVOC, CH02)가 붙는다.

삽입 안의 does know를 본동사로 잡으면 to get on이 갈 곳을 잃는다.
삽입 안의 동사는 그 절의 것이다.

[3] 짝의 한가운데 삽입 2019.07 고3 31번 · 25%

㉠ 자리 could 다음 — or should —가 열리고 닫힌다. 그 사이를 넘긴다.

... something [that could [— or should —] be prevented]
could ———— 넘긴다 ———— be prevented

㉡ 줄히기 넘기면 could be prevented — 조동사와 본동사가 붙는다. 한 덩어리 V가 복원된다.

could와 should는 둘 다 be prevented에 걸린다 — "막힐 수 있었던, 아니 막혔어야 할".
삽입은 둘째 조동사를 끼워 넣은 것이다.

[4] 삽입 둘 — 문두와 문중 2014 고3 34번 · 26%

㉠ 자리 문두 **Like many errors ...**, (전치사구, CH08)와 문중 **, on closer examination,** (삽입). 둘 다 넘긴다.

[Like many errors and biases that seem irrational on the surface,]
 ┌────────── 넘긴다 (CH08) ──────────┐
 auditory looming turns out, [, on closer examination,] to be pretty smart
 S V ┌── 삽입: 넘긴다 ──┐ C

㉡ 좁히기 넘기면 **auditory looming turns out to be pretty smart.** — S·V·C가 드러난다.

turns out 다음의 삽입은 **V와 C를 끊는다**. 삽입은 S-V뿐 아니라 어느 자리 사이든 끼어든다.

[5] 삽입 없이 분사가 S를 늘린다 2019.10 고3 29번 · 33%

㉠ 자리 삽입 표지(콤마 쌍·대시)가 **없다**. 대신 **sending a signal in the brain**이 **neuron**을 꾸민다(CH03).

An individual neuron [sending a signal in the brain] uses as much energy as ...
 S ─────────── ┌── 분사, 넘긴다 ──┐ V O

㉡ 좁히기 분사구를 넘기면 **An individual neuron uses energy.** — S와 V가 붙는다.

삽입만 넘기는 게 아니다. 표지가 없어도 S에 붙은 분사(CH07)는 같은 방식으로 넘긴다.
sending을 동사로 잡으면(be가 없어 가짜, CH03) **uses**가 갈 곳을 잃는다.

다음 장 — CH12는 **and**다. PART III의 마지막이다.

and가 무엇과 무엇을 묶었는지 — 단어인지 절인지 — 를 가른다.

and는 무엇을 묶는가

BEFORE

and를 보면 바로 앞 단어와 뒤 단어를 묶었다. 그런데 짝은 멀리 있었고, 엉뚱한 둘을 이었다.

AFTER

and 뒤를 먼저 보고, 같은 모양을 앞에서 찾는다. 거리는 상관 없다. 모양만 같으면 짝이다.

이어받기 PART III의 마지막

장	이은 것
CH10	떨어진 S와 V
CH11	삽입을 넘어 앞뒤
CH12	and가 묶은 둘

and는 문장에서 가장 흔한 접착제다. 그런데 **무엇과 무엇을 붙였는지**가 안 보이면 문장이 통째로 어긋난다.

고3 문장에서 and는 **바로 옆을 묶는 일이 드물다**. 대개 멀리 떨어진 둘을 묶거나, 아예 절을 잇는다. 그래서 and **뒤부터** 봐야 한다.

문제 and 바로 앞을 짝으로 읽는다

2016 고3 수능 38번

29%

Yet so often we confuse means with ends, **and** sacrifice happiness (end) for money (means).

대부분이 이렇게 읽는다 — and 바로 앞은 ends다.

그래서 ends and sacrifice를 묶어 "목적과 희생"으로 읽는다.

그러면 happiness가 어디에 걸리는지 읽는다.

Yet so often we confuse means with ends, and sacrifice happiness for money
 S V ① V ②
 └── and가 묶은 것은 동사 둘: confuse · sacrifice ───┘

and 뒤가 sacrifice—동사다. 앞에서 동사를 찾으면 confuse.

we가 둘 다의 주어다 — 주어 하나에 동사 둘. ends는 짝이 아니다.

